



# 아주대학교 사람들

아주인 여러분,  
여러분의 젊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아주정신을 위한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

4월12일, 아주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학교는 그 어떤 대학보다 정도를 걸으면서 빠르게 성장한 대학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지켜온 시간이 있었기에 아주의 위상이 높아졌고, 아주인을 바라보는 평가도 바뀌어 왔습니다. 아주 가족 여러분의 이야기도 풍성해졌고, 학교 풍경에도 세월의 무늬가 스며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외부에 비친 아주의 모습을 확인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입시, 대학평가, 평판도 부문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냉정하게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주가 대학 개혁의 선도적 역할에서 주춤해진 것,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부모들의 지리적인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동문들의 결속이 더 필요한 것 등에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내실이 강한만큼 앞으로 보다 큰 꿈을 품고 실행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주는 이제 좋은 대학에서 위대한 대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학으로 가는 수많은 요건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아주정신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규모보다 질을 높이는 것에서, 새로운 시도와 차원이 다른 해석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서, 아주정신의 핵심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런 아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성장과 대학의 발전이 공존하는 창의적 결합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다시 봄입니다. 지난 겨울 당신이 땀과 열정으로 준비한 꽃망울이 화려하게 피어나길 지켜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난 겨울이 힘들었다면 새로 시작합시다. 당신이 성장할수록, 이야기가 풍성해질수록, 학교는 위대한 길로 한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총장 안재환

안재환

AJU UNIVERSITY 40th Anniversary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

아주대학교 개교 40주년을 기념하여 홍보대사(AURA) 학생들이 촬영한 사진을 재구성했다.  
400여명의 아주대 학생들이 개교 40주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사진 촬영에 임했다.  
더불어 아주대 교수들의 모습도 함께 넣어봤다.





## Ajou University 40th Anniversary

아주대학교는 4월12일 개교 40주년을 맞이한다. 그 세월 동안 아주대가 쌓아온 성과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보완하고 고쳐나 가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지난 호 '아주대학교 개교 40년, 그 유산과 가치를 되짚다'라는 주제로 아주대의 지난날을 만들어 온 원로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외부 전문가가 보는 아주대의 모습을 들어본다. 지난 3월2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좌담에는 안재환 아주대학교 총장,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민경오 LG 전자 전무, 유병화 비타에듀 학력평가연구소 평가이사가 참여해 아주대학교의 입시, 대학평가, 졸업생 평판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앞으로 아주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조언도 함께 들어봤다. 정리 이슬(홍보실)

# 아주를 바라보는 주목할 시선

작지만 강한,

대학 개혁의 선두주자

**안재환** 아주대학교는 역사가 길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장단점도 혼재해 나타난다. 1986년 처음 아주대학교에 부임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대 교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였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한 대학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대학의 제도와 문화 개혁에 있어서 아주대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빨리 움직였다. 새로 영입된 젊은 교수들이 많아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른 덕분이었다. '아주대학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강홍준** 아주대학교는 1990년대 '대학 개혁의 선두주자'였다. 국내 최초로 학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교수평가제를 실시하고, 학생중심의 대학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아주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개혁적인 시도가 많았다.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1994년에 시작됐는데 당시 대학평가 전반을 이끌어갔던 대학을 꼽는다면 아주대와 한양대다. 1998~1999년 아주대가 급부상했기에 나는 아주대가 국내 대학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가장 역동적인 대학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아주대가 침체기를 겪는 듯 보여 아쉽다.

**유병화** 아주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물론 수험생 학부모들의 뇌리에는 아직 아주공대, 대우의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입시 측면에서 보면 이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들에게 아주대는 '목표 대학'이 아니라 '보험 대학'이기도 하다. 현재의 입시 전형은 여러 군으로 나뉘어져서 수험생들이 복수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아주대학교는 'SKY'로 지칭되는 메이저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이 선택하게 되는 보험대학의 위치에 가까운 것이 안타깝다.

**민경오** LG전자를 비롯해 이쪽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졸업생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 아주대 출신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이 참 성실한 엔지니어라는 거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 뿐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안재환 아주대 총장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방문 연구원을 거쳐 1987년 아주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입학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역임했고 2011년 2월 제14대 총장에 취임했다.

**안재환** 직설적으로 평가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최근 아주대의 어려움은 연구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연구역량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는 몇몇 학과들을 집중 육성하려고 한다. 대학의 경쟁력은 교육, 연구, 국제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인데 아주대학교의 경우 실제 현실보다 평가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평가보다 실제가 좋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유병화** 아주대학교를 실제로 와서 보면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 학교도 예쁘고 융합시대에 걸맞게 관련 있는 대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또 학생들의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실제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지방대학이라는 이미지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대입 수험생 중 서울 거주 학생 비율이 26% 정도 된다. 서울 강남에서 아주대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로는 30~40분밖에 안되는데 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아주대는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강홍준** 어떤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는 자기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깔고 여러 대안을 선택지로 만든다.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최종 결정의 순간에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예전에 혁신적이었던 아주대의 이미지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의과대학, 로스쿨, 약학대학을 유치하는 등 외연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꾸준히 성과를 내왔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학가를 선도하는 혁신적 시도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민경오** 앞서 말했지만 내가 기업에서 함께 일했던 아주대 출신 엔지니어들은 무척 성실하고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다. 부서 간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 있는 엔지니어, 사업 마인드를 갖춘 엔지니어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은 적극적인 인재를 원한다. 남들과 다른 무엇,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찾아보니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도 아주대학교 출신이 전체의 3% 정도 되더라. 하지만 그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 누가 아주대 출신인지도 모르고 있다. 출신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안재환** 아주대학교 동문들의 결속력이 다소 약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낸 아주인이 많이 있는데도 서로서로 잘 알지 못한다. 총장이 된 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학생과 동문 모두가 '아주인'이라는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주대는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해왔지만 브랜드 파워가 아직 그리 강하지는 못한데, '아주대학교'라는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홍준** 동문들을 잘 활용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려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케이스를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 선배들을 통해 배우면서 소속감과 자부심도 높아지게 된다. 모 대학 졸업식에 갔다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 싶다. 오전에 전체 학생 대상 졸업식을 한 뒤 오후 각 단과대학 별로 다시 모였는데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 모두에게 30초씩 소감발표를 시켰다. 그런데 박사 다음 순서로 6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연구과정생들에게도 소감발표 기회가 주어졌다. 대부분 공기업 재직자인 연구과정생들에게 소속감을 주고 '학교가 그만큼 여러분을 대우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게끔 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아주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해 학교의 '팬(Fan)'으로 만드는 전략을 펴야한다.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1992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현재 논설위원으로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출입기자를 거쳐 2005년부터 사회부문 교육팀장을 역임했고 대학평가팀 팀장으로 일했다.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위원도 맡고 있다.



**민경오** 성공한 졸업생들의 케이스를 학생들이 계속 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성공한 선배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비전(vision)'을 확실히 하고 자부심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나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했는데 그곳에서는 성공한 졸업생들을 매우 자주, 꾸준히 만나도록 계기를 마련해줬다. 선배들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된 학생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키우고, 벤처기업을 만들어 성공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 아주대학교도 이런 케이스를 자주 개발해서 학생들이 자신감과 비전을 갖춘다면 '아주대 출신들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병화** 학교 홍보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집단이 학부모다. 예를 들어 어떤 수험생이 대입 원서를 쓰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주대 학부모가 긍정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던져준다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성공한 동문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의 이미지는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먼 곳이 아닌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았으면 한다. 아주대 출신이라는 소속감, 자부심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아주대의 훌륭한 인프라, 교수진의 헌신, 학생들의 열정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부심과 애정 가진 '아주맨' 만들어야

'아주대학교'  
브랜드 파워  
강화위한  
노력 필요

**강홍준** 지금의 대학은 내실과 관계없이 캠퍼스가 서울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주대가 효과적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최근 연세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세대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는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학생과 함께 교수도 기숙사에 머물며 학업 뿐 아니라 봉사활동과 문화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RC프로그램을 통해 학부교육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학교가 대학문화를 선도해 나가게 된다. 대학평가는 지표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서 대학의 본질과 관련이 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표 그 자체가 학교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 올라가지 않는다.

**유병화** 수험생들을 놓고 보면, 문과와 이과 아이들의 성향이 매우 다르다. 요즘은 복수전공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문과학생들은 대학 선택 시 학과 보다는 학교 브랜드를 많이 본다. 하지만 이과 학생들은 다르다. 하나의 전공으로도 충분히 먹이기 때문에 학교 브랜드를 따라가기 보다는 학과를 우선에 둔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이과 학생들이 다른 전공도 맞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준다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일례로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과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놓고 보면 점수대는 한양대가 조금 높다. 그런데 고려대 공대는 '경영 마인드를 갖춘 엔지니어'를 양성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한다. 물론 전통적으로 경영대학의 역량이 강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고려대의 이러한 이미지메이킹이 실제 수험생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걸 아주대도 참고하면 좋겠다.

**민경오** 아주대학교하면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가 떠오른다. 임원까지 지낸 친구인데 성실한데다 굉장한 전략가로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갖춘 사람이었다. 앞서 언급했듯 아주대가 학생들에게 비전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힘쓴다면 사회 곳곳에서 그런 아주대 졸업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아주대라는 아이덴티티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아주대 같이 규모가 작은 대학이 규모가 큰 대학과 같은 방향으로만 댈다면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겠는가. 아주대학교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명확해야 한다.

**안재환** 모두 중요한 지적이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는 데 공감한다. '아주대학교'라는 정체성과 색깔이 분명치 않을 때가 있다. 특히 중요한 자원중 하나가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수들이다. 논문 편수와 연구 성과 등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교수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그런 문화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못 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한다.

**민경오 LG전자 전무**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전산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물산 전산실, 삼성전자 VD사업부 개발팀, 마이크로소프트 IPTV 개발팀을 거쳐 현재 LG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소 전무(수석연구위원)로 재직 중이다.



아주가족  
가슴  
뛰게 할  
'아주정신'  
필요한 시점

**유병화**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아주대학교가 간단명료한 입시전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신, 수능, 논술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해도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을 말하는 것이다. 아주대가 이번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나군을 신설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세 학과에서 수능 수리영역 가형 50%, 과학탐구 영역 50% 반영해 선발)했는데 이런 전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뽑아놓고 보면 이러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충성도도 강하다.

**강홍준** 1990년대 중반 아주대학교 출입자였던 나는 아주대학교를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개교 4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제 아주대만의 정체성이 나올 때가 됐다. 아주정신을 확립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문들을 껴모아서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야 한다. '아주정신'으로 무장한 구성원들이 모두 아주대의 홍보요원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처음에는 내부 구성원의 비웃음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꾸준히 시도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아주정신'을 전 구성원이 공유하고 또 학생들 마음에 심어줘서 사회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속감이 흐려지고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대 동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 다른 스펙을 쌓기 위해 다른 학교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다. 구성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정신'이 만들어지면 동문들도 함께 열광할 수 있다.

**안재환** 오늘 패널들께서 하신 지적에 모두 공감한다. 우리 학교로서는 아프고 쓴소리일 수 있지만 귀담아 듣고 참고하겠다. 40살이 된 아주대학교는 이제 '좋은 대학'을 넘어서 '위대한 대학'으로 커가려 한다. 아주대가 학생들에게 '보험 대학'이 아니라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아주인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게끔 구성원의 힘을 합쳐 보겠다.

**유병화 비타에듀 학력평가연구소 평가이사**  
비타에듀 학력평가연구소 및 비타에듀학원 평가이사로 재직 중이다. 숭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KBS, MBC, SBS, EBS 등 방송과 신문에서 입시 분석 및 교육 칼럼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PEOPLE AJOU UNIV. NEWS

인물동정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및 2013학년도 입학식 개최

아주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과 2013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22일과 2월25일 각각 진행됐다. 2월22일 종합관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장을 받은 학생은 총 1,753명으로 학사 1,453명, 석사 238명, 박사 62명이다. 지난해 8월자로 학위를 받은 학생까지 포함하면 2012학년도 학위 수여 인원은 학사가 2,159명, 석사 381명, 박사 110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9명의 학생이 각 단과대학을 대표해 총장상(성적우수)을 수상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철우(화학공학과), 진희성(정보컴퓨터공학과), 임재균(수학과), 김민성(e-비즈니스학과), 이범성(국어국문학과), 김세현(경제학과), 신나희(법학과), 강지은(의학과), 장우희(간호학과)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유현(e-비즈니스학과) 학생은 공로상을, 옥상호(전자공학과) 학생과 윤은빈(불문학과) 학생은 각각 총동문회장상, 프랑스대사상을 받았다. 안재환 총장은 축사를 통해 “언제나 ‘아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굳건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바란다”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되 조급해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조언했다. 안 총장은 또 “삶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는 존경받는 아주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월25일 체육관에서 진행된 입학식은 박영동 교무처장의 학사보고, 안재환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대표 김진형(기계공학과), 변현오(문화콘텐츠학과) 학생의 입학선서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동 교무처장의 본교 교육방향에 대한 특강, 브라스밴드의 축하공연, 응원단과 동아리(소울, 비트)의 신입생 환영 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입학식이 끝난 이날 오후에는 신입생 배치고사(영어)와 학부모 간담회가 진행됐다. 배치고사는 약학대학을 제외한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1

김상민 의원, 대통령 인수위원회 청년특위 위원장에 임명

아주대학교 동문인 김상민 의원(사학 92)이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청년특위는 실업문제를 비롯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1999년 아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상민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로 뽑혀 정계에 입문했다. 김 의원은 졸업 후 청년 자원 봉사단체 V원정대를 운영하던 청년 운동가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새누리당에 영입된 바 있다. 환경노동위 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본부 청년본부장, 박근혜캠프 청년특보로 활동한 바 있다.

2

박명규 동문, 한라일보 신춘문에 당선

박명규 동문(국문 85)이 2013 한라일보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당선됐다. 당선작의 제목은 <상여집이 있던 자리>다. 2013 한라일보 신춘문에는 시와 소설 부문에서 당선작을 배출했다. 시상식은 1월17일 제주시에 위치한 한

라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 심사를 맡은 작가 현기영 씨는 박 동문의 작품에 대해 “시종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추리 수법의 치밀한 플롯이 돋보인다”며 “야성적 성품의 두 사내가 벌이는 치열한 경쟁이 불만인데, 특히 석기의 인물 형상화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박 동문은 “당선 소식에 본인 보다 더 행복해했던 가족들과 아주대 국문과 사람들, 고향친구들, 젊은 시절 충무로에서 함께 시나리오 작가를 꿈꿨던 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쓰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3

송현호 교수,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아주대학교 송현호 교수(국어국문학과)가 제 3기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1월부터 2014년까지 2년이다.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자문 기관으로 사업단이 추진하는 모든 국내외 사업을 심의, 평가한다. 한편, 한국학진흥사업위원회는 정운재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을 비롯한 교수들과 교과부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1. 김상민 의원  
2. 2013 한라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자 박명규 동문  
3. 송현호 교수

PEOPLE AJOU UNIV. NEWS

인물동정

연구 및 교육 우수 교수 시상 및 신입·퇴임 교수

지난 2월28일 원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개강보직교수 세미나에서 연구 및 교육 우수 교수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아주대학교는 매년 연구와 교육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교수를 뽑아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연구 우수 교수는 최근 3년간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실거나 특허 및 신기술 발명을 통해 국제적으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최고상에 해당하는 울곡상 수상자는 없었고 다산상(자연계열), 성호상(인문사회계열), 송재상(의학계열) 수상자만 나왔다. 다산상은 박기동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에게 돌아갔고 성호상은 강지혜 영어영문학과 교수, 송재상은 장석준 의학과 교수가 받았다. 교육 우수 교수의 경우 총 6명의 교수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혜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대상을 받았고, 오성근(전자공학과), 이기정(수학과), 정대용(경영학과), 박형란(간호학과), 윤소연(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우수상을 받았다.

같은 날 열린 신입교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안재환 총장이 올 1학기부터 아주대 강단에 서게 되는 총 14명의 신입교수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안재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주대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자신의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역량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학문을 할 수 있는 유연성도 도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장을 지낸 임한조 전자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5명의 교수는 올 2월을 끝으로 정년퇴임했다. 전재석 수학과 교수, 고근하 물리학과 교수, 황의록 경영학과 교수, 나봉순 기초교육대학 교수가 정년을 맞이했다.

2013학년도 1학기 신입교원 명단

△허준석(전자공학과) △손경아(정보컴퓨터공학과) △정의진(수학과) △김성환(물리학과) △김상일(경영학과) △임현우(경영학과) △호정화(사회학과) △이동주(약학과) △손영배(의학유전학과) △이다근(병리학교실) △이영수(유전체불안정성제어연구센터) △이재명(외과학교실) △이진수(신경과학교실) △최진욱(영상의학교실)

- 1. 연구우수교수상 수상자들과 안재환 총장. 박기동 교수를 대신해 수상한 배진우 교수, 강지혜, 장석준 교수(왼쪽부터)
- 2. 개강 보직교수 세미나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신입교원들의 모습



4

이지환 동문, 스티커형 태양전지 개발 성공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99학번 이지환 동문이 포함된 연구진이 어디에나 손쉽게 붙여 쓸 수 있는 스티커형 태양전지를 개발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12월20일 발행된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소개됐다.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이지환 동문은 현재 스탠포드 대학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가 소속된 연구팀이 개발한 것은 다양한 제품에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태양전지다. 연구진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웨이퍼 기판에 얇은 니켈막을 입히는 과정만 추가하면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물속에 들어가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니켈의 특성을 이용, 실리콘 웨이퍼 기판에서 태양전지 회로를 얇게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것. 이렇게 분리된 태양전지 회로에 접착제를 바르면 스티커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지환 동문은 “최근 학회에서 아주대학교 동문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생겨 무척 반갑고 자랑스러웠다”며 “더 많은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교류 기회를 활용해 국제 무대로 진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

이교범 교수 연구팀, 효성 글로벌 논문 공모전 우수상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이교범 교수와 전력전자연구실 대학원생 3명이 제3회 효성 글로벌 논문공모전에서 우수상(Excellent Prize)을 수상했다. 이 교수의 지도로 전력전자연구실 소속 최대근(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최우진, 김정현(전자공학과 석사과정) 학생이 ‘Ajou PEL’이라는 팀을 꾸려 참여했다. 해당 논문은 ‘T타입 3-레벨 인버터를 위한 고장허용 제어 기법(Fault-Tolerant Control Strategy for T-type Three-Level Inverter Systems)’이라는 제목이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5,0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최대근 학생은 “국내외 관련 분야 연구자들끼리 겨룬 논문공모전에서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이 기쁨을 이교범 교수님, 전력전자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교범 교수는 “현재 우리 학교 전력전자연구실은 전동기 구동, 신재생에너지 전력변환시스템, 전기자동차 응용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전력전자시스템의 고신뢰성 운전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준 연구실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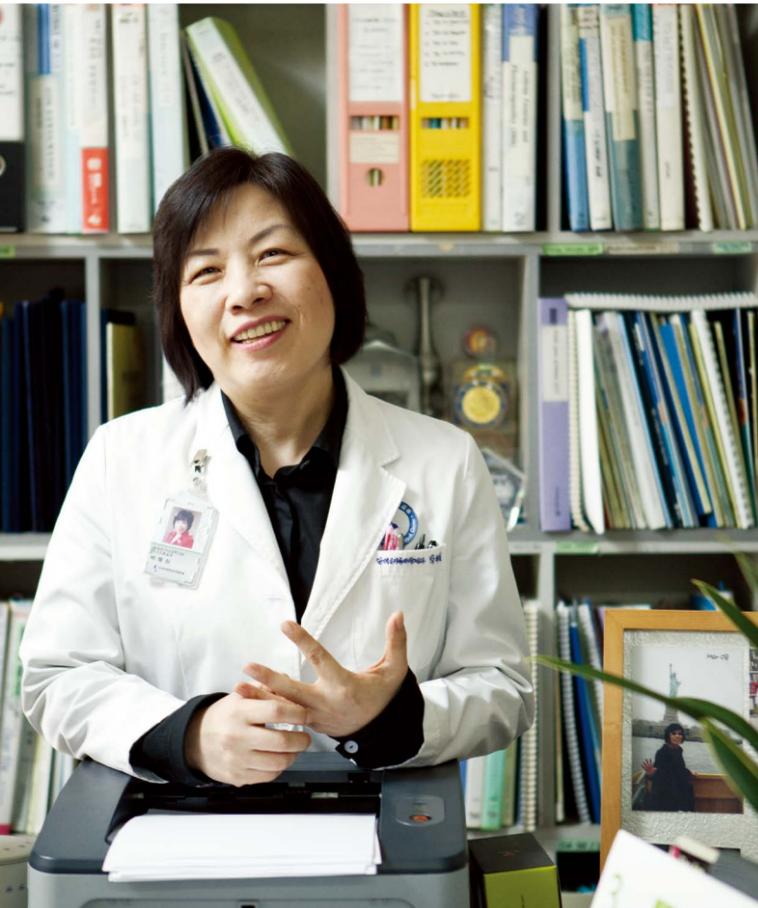
4. 스티커형 태양전지 제조방법과 활용방안  
5. 이교범 교수 연구팀의 최우진, 김정현, 최대근 학생(왼쪽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가장 많은 의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알레르기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박해심 교수에게는 모든 환자들이 가족이자 인생의 동반자다. 내 어머니, 내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일념으로 오직 '알레르기 연구'의 한 길을 걸어왔다. 20년간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며 그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제10회 유일한상'을 수상했다. 글 이경아(편집실)



# 알레르기 연구 20년, 충분히 해볼 만 했다!

박해심 (알레르기내과) 교수



‘유일한상’은 평생 모범적인 기업가, 교육가, 독립운동가, 사회봉사자의 삶을 살다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 故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된 상이다. 유한양행에서 2년에 한 번씩 시상하는 이상의 10번째 주인공을 선정하기 위해 김운섭 사장은 직접 대한의학회를 찾아가 추천을 의뢰했고, 명망 있는 의학계 인사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후보자를 모색하는 과정만 3개월, 드디어 후보자가 2명으로 추려졌고 이사회에서 최종 한 명으로 아주대 의대 박해심 교수를 선정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제가 될 거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죠. 이 상은 그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수많은 환자와 오랜 기간 동고동락한 병원 식구들, 그리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 알레르기에서 발견한 ‘경쟁력’

일반인에게 해롭지 않은 다양한 외부물질(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동물 털, 약물 등)에 대해 인체가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알레르기가 동반되는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경과와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치료와 수술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암과 같은 질환에 비해 사망률이 낮고 심각성이 적은 분야라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알레르기학은 국내 도입이 늦었고, 현재까지 알레르기 전문의가 많지 않은 실정에서 박 교수의 ‘존재감’은 실로 대단할 수밖에 없다.

“관심을 끌지 못했던 알레르기와 면역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봤기 때문이에요. 알레르기 질환에는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직업성 천식’을 보면 알 수 있죠.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고, 그 결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적 명의로 인정받는 그녀의 경쟁력은 기초와 임상 접목해 증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긴밀한 순환 체계에 있다. 환자들의 조기 진단과 확진, 치료법 향상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녀만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알레르기 치료제 개발의 세계적인 연구자로 떠오를 수 있었다. 현재 시판되는 주요 천식 흡입제의 글로벌 임상 시험에 대부분 박 교수가 참여했으며, 주요 연구 주제인 ‘직업성 알레르기’와 ‘아스피린 과민증 및 항생제 알레르기’ 분야의 강연자로 매년 국제 학회에 초청받아 강의를 펼치고 있다.

\* 코호트(Cohort)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특정 인구 집단으로, 통계적으로 동일한 특색이나 행동 양식을 공유한다.



직업성 알레르기란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각종 화학물질과 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천식, 비염, 알레르기 피부염 등을 말한다. 박 교수는 이 질환에 대한 세계 최대 환자 코호트(Cohort)\*를 구축해 새로운 병인기전을 밝혀내고, 이에 따른 조기 진단법 및 예방법을 개발해 왔다. 특히 직업성 천식에 대한 다양한 연구 기법을 이용해 면역 및 유전체 진단법을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스피린 과민증 역시 최대 환자 코호트를 구축, 한국인 고유의 유전적 배경에 대한 유전자 진단법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상용될 수 있는 유전적 마커 및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항생제 알레르기 면역진단법을 개발해 다국적 연구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 세계적 명의로 되기까지, ‘즐거다’

“앞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은 더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의가 많이 양성돼야 하는데, 국내 의대나 대학병원 중에는 알레르기 및 임상 면역학 전공 교수를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의대 교수 요원을 1~2년간 훈련시킨 후 모교로 돌아가 핵심 알레르기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알레르기 연구와 진료뿐만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박 교수는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알레르기 전문의 요원들을 훈련시킨 후 돌려보내기도 했다. 20년 동안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알레르기’에 투자했고, 앞으로도 그리할 그녀의 ‘외길 원동력’은 환자에 대한, 그리고 알레르기학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다. 즐기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고, 또 즐기느라 스트레스 받을 틈도 없었다. 그녀가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 “학문을 즐겨라,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 아주대, 국내 대학 첫 ‘비교과활동 증명서’ 발급 Extra-Curricula activities

글 이슬(홍보팀)

다양한 학생 교내외 활동,  
학교가 나서 인증



아주대학교가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비교과활동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학과 공부 이외에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학교가 나서 인증함으로써 기업 채용담당자들의 판단을 돕고 학생 스스로 체계적인 진로계획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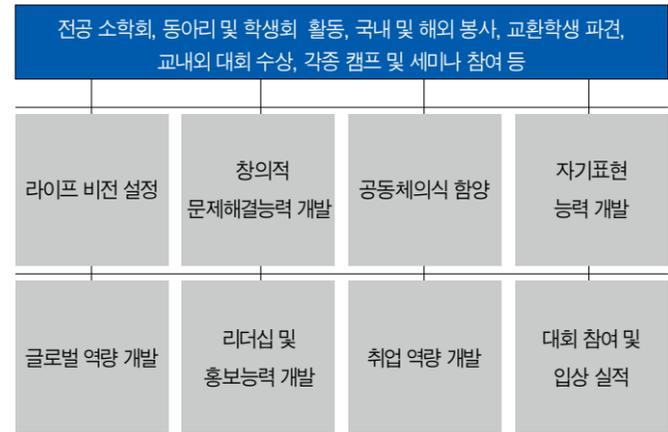
대학이 그동안 학생들의 봉사활동 등 특정 분야의 활동을 인증해 준 경우는 있었지만, 학생들의 학업 이외의 활동을 모두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공식 발급해준 경우는 아주대가 처음이다.

아주대가 지난 2월말부터 2013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범발급을 시작한 이 증명서의 공식 명칭은 ‘아주블루 비교과활동 증명서(Extra-Curricula activities)’다. 학생들은 기존에 성적표나 재학·졸업 증명서를 발급받던 것과 같이 원하는 경우 비교과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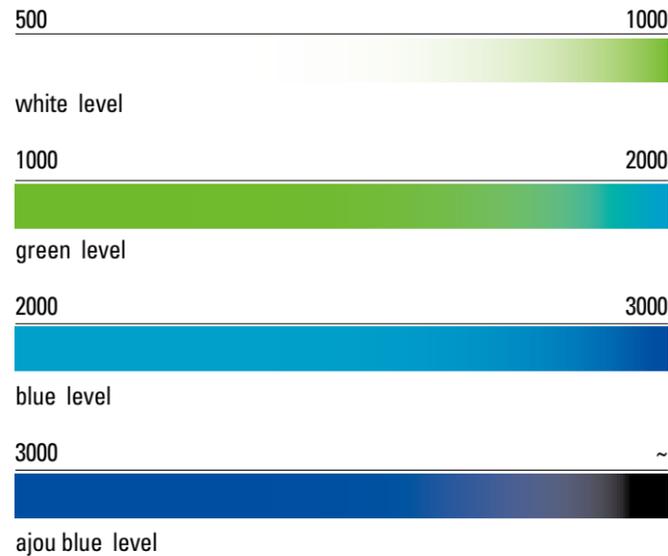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교내외 활동은 전공 소학회, 동아리 및 학생회 활동, 국내 및 해외 봉사, 교환학생 파견, 교내외 대회 수상, 각종 캠프 및 세미나 참여 등이다. 국토대장정이나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경험도 물론 포함된다. 아주대는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크게 8개 영역으로 분류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1.라이프 비전 설정 2.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개발 3.공동체의식 함양 4.자기표현 능력 개발 5.글로벌 역량 개발 6.리더십 및 홍보능력 개발 7.취업역량 개발 8.대회 참여 및 입상 실적이다.

마일리지는 최소 1점부터 최대 50점까지 부여된다. 마일리지 총점에 따라 4단계의 인증레벨이 주어지며 이는 △화이트레벨(500~1000점) △그린레벨(1000~2000점) △블루레벨(2000~3000점) △아주블루레벨(3000점 이상)로 나뉜다. 최고 등급인 아주블루(Ajou Blue)는 아주대 학교 UI(University Identity)에 사용되는 진한 파랑색의 고유 명칭이다.

학생들은 교내 인트라넷(AIMS2)을 통해 자신이 취득한 비교과활동 마일리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행사나 프로그램을 주관한 기관에서 발급해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관리부서에서 이를 확인한 뒤 마일



마일리지는 1점부터 최대 50점까지 부여



리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교내 행사의 경우 시행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업로드하거나 학생이 신청한 뒤 학과에서 마일리지를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마일리지 부여 작업이 진행된다. 학생 개개인이 AIMS2에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으나 대외 기관에 인증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주서비스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현재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되고 있는 ‘아주블루 비교과활동 증명서’는 재학생 대상 설명회를 비롯한 교내 홍보활동을 거친 뒤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아주블루 비교과활동 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주대 교무팀, 사회진출센터, 대학교육혁신원, 학생지원팀은 지난해 9월부터 태

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일리지를 부여할 세부 활동을 정하고 관련 기준과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아주대가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시작한 데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 이외에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다양한 비교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한 ‘비교과활동 증명서’의 발급을 통해 취업을 위한 스펙 관리 차원을 넘어 대학으로서 학과공부와 비교과 활동에 두루 열의를 다하는 ‘다산형(茶山)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되어 있다.

‘아주블루 비교과활동 증명서’ 프로젝트를 주관한 박영동 아주대 교무처장은 “융복합 시대를 이끌어갈 ‘다산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학교가 보증하고 기록하고자 한다”며 “비교과활동 증명서를 통해 기업들도 채용 시 학생들 개개인을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또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자신의 비교과활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진로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교내외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제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김보성(컴퓨터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가?  
그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가?  
2012 ICUTE(International Conference on 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Application) 국제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김보성 학생.  
스스로를 연구실 끝까지 생각했다던 그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배움에 대한 목표의식과 물러서지 않는 끈기였다.



그대,  
아직도 노력을  
의심하는가

글 김아름(편집실)

**배움의 길을 선택하다**

김보성 학생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은 항상 배우며 살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IMF 이후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3년 6개월 만에 당당히 정보통신 박사 학위를 따신 분이였다. 그 무렵 대학에 갓 입학한 김보성 학생에게 공부는 아직 막연하게 느껴졌다. 그런 그가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은 공사장 막노동 일을 통해서. 공사장의 모래바람을 마시며 길이 3~4m의 철근을 맨 몸으로 날랐고, 공사장 전용 신발을 신었지만 발바닥에 못이 박혀 걸음을 걷기가 힘들었다.

“매일 온 몸이 천근만근 같았죠. 공사장 일을 권유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일이 그렇게 행복한 건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배움의 중요성을 알게 했다면, 노병희 지도교수는 그에게 공부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노 교수님은 대학원 진학부터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분이십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큰 도움을 주셨어요. 세계 유명대학 학생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아시나요? ‘잘 몰라서 자신이 없습니다’가 아닌 ‘부족하지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결국 부족한 자신을 채운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다’, ‘해 보겠다’는 말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결국 부족한  
자신을 채운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할 수 있다’  
‘해 보겠다’

**공부의 왕도는 없다,  
노력만 있을 뿐**

그를 지금의 위치에 서게 한 것은 결국 스스로의 노력과 끈기였다. 석사과정 첫 학기, 당시 그는 자신이 연구실의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어리고 부족한 실력의 그가 다른 학생들의 인정을 받을 리 만무, 서툰 그를 향한 무시와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뿐만 아니었다. 기업 관계자와의 미팅에서도 그에겐 인사말조차 건네는 이가 없었다. 남들의 이목에서 수차례 멀어지다보니 ‘이까짓 어려움, 내가 이겨내고 일어서고 만다’는 오기라는 놀이 꿈틀거렸다. 그때부터 하루 2~3시간 이상의 수면은 사치라는 생각으로 연구에 매진했다. 연구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두세 달 후, 실력이 늘면서 여유도 생겼다. 성장의 다른 왕도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지난 겨울, 홍콩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일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Your Best Paper Award’ 이미 몇 차례 다른 학회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았던 논문이었고,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발표를 잘한 것 같지도 않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뜻밖의 쾌재였다.

수상한 논문은 그가 평소 연구하던 분야와 달라 애를 먹었다. 새로 익혀야 할 전문지식이 많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준비하던 다른 연구로 인해 집중이 힘들었다. 어렵게 완성한 논문을 여러 학회에 보내봤지만 좋은 소식을 듣기 쉽지 않았다. 지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손에서 놓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꼬박 1년을 매달린 결과였다. 그가 작성한 ‘Efficient Capacity Allocation for Real-Time Traffic in MF-TDMA based GEO Satellite Systems’라는 제목의 논문은 ‘인공위성의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동영상, 음성 데이터의 용량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과 계산법, 남은 용량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연구다.

연구실 5년차에 접어든 그는 요즘 헬스와 수영을 시작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는 일이 잦아 보니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몸이 피곤해 애를 먹었지만 지금은 운동을 통해 엔도르핀과 연구에 필요한 지구력을 얻는다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면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많아 행복한 고민 중이라는 그. 하지만 어떤 일을 선택하든 공부는 평생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뛰어난 두뇌도, 아이디어뱅크도 아니었던 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었습니다. 노력 없이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던데…….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 최고의 파트너가 만들어 낸

## 최초의 판례

최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준하(법학전문대학원 3기) 학생



승소 판례가 없는 사건, 그래서 변호사들도 맡기 꺼려하는 소송이었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겼다! 지난한 싸움 끝에 상대를 물리친 짜릿함이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이끈 국가 상대의 공익 소송이라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두 명의 '히어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 교수와 윤준하 학생을 만났다.

글 이경아(편집실)

피고는 대한민국, 원고는 경기도의 작은 중소기업 A사. 소송의 이유는 잘못 납부한 세금 1억 8000여 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1심은 모두의 예상대로 졌다. 노련하지 못한 학생들이 사건을 맡아서가 아니다. 납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 더군다나 적용할 수 있는 판례까지 없었다. 최원 교수와 이종경, 박상윤, 윤준하 학생은 힘든 싸움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다.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제대로 한번 짜봤다. 그리고 보란 듯이 멋지게 승소했다.

변호사가 아닌 로스쿨 학생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계기는 법학전문대학원 내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소송법률 상담 등을 실제 진행하면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으로, 중소기업법무가 특성화된 아주대에서는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의뢰 받은 상담 중 선별한 사건들을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소송대리권이 없는 학생들은 소장,

납부한 세금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적용할 수 있는 판례까지 없었다.

그럼에도 보란 듯이 멋지게 승소했다.

준비서면, 증인신문사항 작성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주도하고 실제 수행은 1심은 법무법인 대지, 2심은 원고 본인이 직접 맡았다.

“아주대 교수로 오기 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잘못된 국가 제도를 바로잡는 공익 소송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와 납세자 간에 설정된 제도가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국가는 납세자가 과소 납부한 세금을 5년 동안 거둬들일 수 있지만 납세자의 과오납 세금은 2년이 지나면 되돌려주지 않아요. 판례가 없던 이번 사건에 승소함으로써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봐요. 납세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져 매우 뿌듯합니다”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던 최 교수에게 지난 2011년 A사가 상담을 의뢰해왔다. 독일에서 기지국용 안테나를 수입하던 A사는 2007년부터 0%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잘못 신고해 7%의 관세를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2년간의 경정청구기간에 속하는 2009~2011년에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았으나 2007~2009년까지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소송을 준비할 때 저는 법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송 결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2심을 준비하게 됐을 때는 더욱 막막했죠. 같이 진행했던 형들이 시험 준비로 바빠제가 도맡아야 했거든요. 등산을 하고 내려오던 어느 날 사건을 의뢰한 중소기업 대표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뜸 '이길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분도 힘들다고 생각하셨겠죠. 그 때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죠”

마음가짐을 달리한 윤준하 학생은 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형식에 맞게 작성하고 정확한 법률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고민했다면, 이번에는 한 기업의 역용함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래서 소장에 도표를 넣는 나름의 실험을 했다. 관세를 잘못 신고한 당시 A회사 제품 점유율을 동종업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단가 경쟁력에서 밀린 것이고, 자유경쟁시대에 당연한 결과였다. 윤준하 학생은 이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처음 승소했다는 전화를 받았던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난 1월17일이었죠. 생애 첫 승소잖아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법원에서 학교 시험기간을 봐주는 것도 아니니,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감'은 확실히 익혔어요. 자신감도 생기구요. 최원 교수님의 도움이 컸어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많이 심어주셨죠. 지금 제가 교수님 연구실 조교로 있는데요, 열른 교수님의 범조인 파트너로 성장하고 싶어요”

세법을 잘 알고, 관련 사건을 다양하게 다뤄본 범조인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최 교수는 모든 로스쿨 학생들의 훌륭한 스승, 존경 받는 범조인이다. 그의 꿈은 한쪽으로 편승돼 있는 세법 이론의 반대편 이론을 연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윤 학생도 교수님의 행보를 뒤따르고 싶다고. 아무런 보상 없이 무료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받은 답례가 있다면, 쪽 같은 길을 걸어갈 서로가 아닐까 싶다.

E V E N T A J O U U N I V . N E W S

행사소식



1 **KIST와 MOU 체결, 교육 및 연구 전반 협력키로**

아주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2월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KIST 본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재환 총장과 문길주 KIST 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대학원 학연과정 공동운영 및 학생교류 지원, 연구 전문 인력 및 연구 정보의 교류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안재환 총장은 “아주대가 그동안 여러 기관들과 다양한 업무협력을 진행해왔지만 정부국책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신임교원 연구세미나 및 교무위원 워크숍 열려**

신임교원 세미나와 교무위원 워크숍이 2월18일과 19일 양일간 포천 아도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신임교원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연구 분야 발표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임용된 지 만 3년이 되지 않은 교원 50명중 32명이 참가했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2012학년도 교무위원 워크숍에는 안재환 총장, 소의영 의무부총장, 단과대 학장들과 각 처장 등이 참석해 2012학년도 주요 현안을 돌아보고 2013학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대학 학장들은 대학별로 연구지표가 하락하는 이유,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학과체에 따른 정원조정과 전과 문제 해결방안, 재정안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3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상호 업무협력 협약 맺어**

아주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월8일 오전 11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아주대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연구 프로그램 기획 및 산학협력과제 공동연구, 대학원 학연과정 공동운영 및 연구원 인력교류, 시설 및 장비 인프라 공동 사용,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4 **산학협력단, 기술보증기금 및 아주자동차대학교 업무협약 맺어**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기술보증기금(KIBO), 아주자동차대학교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산학협력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제휴 협약식은 2월8일 오전 율곡관 425호에서 열렸다. 김재호 산학협력단장과 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장을 비롯해 아주대 김상인 교수, 신경철 연구팀장이 참석했다. 기술보증기금의 배금철 녹색융복합R&D센터 센터장과 최정현 팀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주대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의 기술 이전 및 거래 활성화 뿐 아니라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의 발굴 및 추천, 기술 금융 지원, 정보의 상호 교류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율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아주자동차대학교는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을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공동 활용, 협의체 구성을 통한 구성원 간 발전 도모, 양 기관 주최 행사의 공동 참여, 공동 연구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5 **약대, 약업계 전문지 약사공론과 MOU 체결**

아주대학교 약학대학과 약사공론이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1월11일 체결했다. 약사공론은 대한약사회가 발행하는 약업계 전문지다. 양 측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보건약학과 관련한 교육 및 정보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특화사업(임상과 R&D 병행연구 및 특수교육과정 설치), 공중보건약학 연구 사업 공동 수행, 인프라 공동 활용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6 **제2회 아주 ACE 컨퍼런스 열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2차년도 실적 공유하고 다른 대학의 우수한 사례를 함께 듣기 위해 제2회 아주 ACE 컨퍼런스가 열렸다. 대학교육혁신원 주최로 지난해 12월20일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교내외 교육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안재환 총장은 “올해 우리 학교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최우수 대학 선정 등 뛰어난 교육적 성과를 많이 거뒀다”며 “각각의 위치에서 애정과 열정을 녹여 낸 많은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7 **2013학년도 학군단 임관식**

2013년도 학군단 임관식이 지난 2월20일 오후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식에는 후보생 생활을 마치고 임관하는 51기 학군단과 2년차로 승급하는 52기 학군단, 그리고 후보생 1년차로 입단하는 53기 학군단 학생 총 124명이 참석했다. 안재환 총장과 이용광 3군사령부 부사령관, 이범재 ROTC 동문회장, 권대기 학군단장,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 정년을 맞으면서...



전자공학과 명예교수 임한조

정년을 맞이하는 감회를 적어 달라는 메일을 받고 며칠 동안 답을 망설였다. 이 글을 쓰는데 얌매이고 싶지 않은 면도 있었지만 정년퇴직에 대한 특별한 소감이 없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성격이 무미건조한 면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부터 인근 대학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으니 필자에게는 다른 대학으로 직장을 옮긴 것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다. 다만 그 대학에서 필자에게 제공할 연구실이 4월 중순 경에야 완공된다 하니 아직은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고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점이 다를까. 또한 이 일 저 일로 너무 바빠서 이 원고도 한가한 시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내야하니 어떻게 정년퇴직의 상념에 접혀있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 은퇴 전 얼마동안은 명예퇴직을 원했을 정도였다. 특히 퇴직 후에는 얼마간 절에서도 살아보고, 세계의 몇 곳을 여행하고도 싶었다. 그러나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이 계획들

을 실행에 옮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은퇴 이후에 자신의 꿈을 실행에 옮기려면 많은 준비와 과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싶다.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손주를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데, 집사람을 도와주다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한국사회는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들이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구조적 문제가 많은 사회이거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화학과에 계시는 모선일 교수님께 옛날에 여교수가 남자 교수와 비슷한 업적을 내려면 네 배 정도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이제 보니 그 몇 배의 노력이나 주변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으면 교수로서 성공하기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면에서 아주대학에 재직하시는 여교수님들에게 소리 없는 성원을 보낸다.

돌이켜 보면 필자는 아주대학에서 많은 행운을 가졌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교수님들과 마음을 열고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으로 기억한다. 사실 필자는 어려서부터 성취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억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인생은 힘들고 서글픈 것으로, 서글프지 않기 위해서는 '재미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시절에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한 기억이 있다. 이런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 여덟하다 보니 물리 과목을 잘해 물리학과로 진학하게 되었고 또 아주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대학에서 교수생활을 마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다. 50대 가까이 되어서도 모두가 선망하는 대학에 지원했다 최종선발에서 실패한 적도 있고, 60대 가까이 되어서도 몇몇 대학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필자를 스카우트하려 할 때 필자가 주저않은 경우도 있다. 이 모두가 한편으로는

돌이켜 보면 필자는 아주대학에서 많은 행운을 가졌던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적지 않은 교수님들과 마음을 열고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했던 것이 가장 큰 행운으로 기억한다.

필자가 유명해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출세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필자의 행복을 우선하고자 하는 생활태도와 다른 한편으로는 필자가 아주대학에서 가졌던 행운을 중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평이한 필자의 삶에서 약간의 전기가 된 것은 프랑스 유학이었다. 학위를 하면서 수업 외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죽어라 노력한 것도 아닌데 필자가 우리나라의 열악한 연구여건에서 그런대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한 밑바탕에는 프랑스에서 얻은 지식, 경험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필자에게도 프랑스 유학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근자에 와서 그 결론은 전문가 사회의 성숙한 문화에 젖어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분명한 사실은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해결하는 연구 활동이 그렇게 어렵던 것이 학위를 받을 즈음에는 온갖 연구주제와 해결방법이 보여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오히려 시간이 모자랄 뿐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일에 대한 안목은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고, 학자 혹은 전문연구자로서의 안목은 학자들로 이루어진 전문가 사이에서 훈련받을 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학 혹은 외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추진해볼 기회를 가졌던 필자의 일생은 행운이었지 않나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필자가 원했던 것은 아주대학이 우수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 것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비록 필자의 그러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많이 남기며 은퇴하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노력들에 후회도 없으며 동료·후배 교수님들에게 원망도 없다. 필자의 능력이 모자랐고 성품 역시 그런 일들을 이루기에 문제가 있었을 뿐이라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어 필자의 업무태도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은 동료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사람이 살다 겪는 일이라 양해해 주시고 미움의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대학사회는 대변혁의 시기에 이미 들어와 있다. 조만간 드러날 그 결과는 우수한 소수의 대학만이 생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후배 교수님들께서는 부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미래에는 더욱 튼튼한 아주대학이 되도록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순망치한(舜亡齒寒)이라는 말과 같이 아주대학의 앞날이 어두우면 나도 우울해지겠지만, 그보다도 남은 교수님들이 더욱 초라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주시면 고맙겠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적절한 정책을 때늦지 않게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주대학의 발전이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디 힘을 합쳐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동료와 후배 교수님들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교수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 환영합니다, 아주의 새내기들!

2013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2월과 3월 초에 걸쳐 각 대학별로 개최되었다. 새내기배움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아주인이 된 13학번 새내기들은 넘치는 열정과 개성으로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마음껏 만끽했다. 선배들과의 첫 만남을 흥겹게 시작한 새내기들, 새로운 아주인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본격적인 학교생활에서도 그 열정 어린 모습을 기대해 본다.



- 1. 경영대 신입생을 위한 학교생활소개
- 2. 2013학년도 공과대학 새내기배움터.  
응용화학생명공학과 미션 달리기 대표자들.  
"공대의 얼굴들이 모두 모였다!"
- 3. 정통대 회장단이 준비한 환영무대. "다 같이 소리 질러!"
- 4. 다함께 맞이한 즐거운 아침. 그리고 끊이지 않는 환한 웃음.
- 5. 시작 신호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달릴 준비를 끝낸 각 학과 첫 출발자 새내기들.  
우리의 모든 감각은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 6. 정통대 소학회의 멋진무대
- 7. 우리는 '경영뉴스' 소학회
- 8. 경영대만의 특별한 의식, 명예선언운동. 컨닝하지 않기, 표절 금지 등 경영인의 마인드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 9. 줄다리기에서 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 새내기들이 강력한 기계공학과 새내기들을 상대로 힘껏 줄을 당기고 있다
- 10. 하루 만에 친해진 사회대 새내기들.  
하지만 게임에서 뺄주는 것은 없음.





〈축제에 심장이 뛰다〉. 이 책은 경영대학 마케팅 소학회(RPM) 소속 학생 26명이 지은 책으로 단순히 축제를 구경하고 온 여행 건문록이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 국내외 축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성공전략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이다. 기획 단계부터 책이 출판될 때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책이 나오기까지 학생들을 이끌어준 이는 RPM 지도교수인 황의록 교수. 지난 2월 정년퇴임을 하고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황 교수를 다산관에서 만났다. 글 정우준(홍보실)

# 정년 맞은 교수와 제자들의 마지막 배낭여행,

## 그리고 책 출판

황의록(경영학과) 명예교수, 변은민(e-비즈니스학과 08)

경영대 마케팅 소학회(RPM)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올해는 금물. RPM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계급이어서 해외여행을 많이 떠날 수 있었던 건 아니다. 황 교수가 학생들의 배낭여행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떤 상황의 의무도 없었지만 참가자들은 단 한 가지 조건을 수행해야 했다. 그것은 여행의 목적이 학생들의 공부, 즉 연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행 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여행 후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혜택 이면에는 힘든 과정들이 숨어 있어서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다. 황 교수는 “책으로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 직접 부딪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학생들을 해외로 내보내 배우게 한 것이다”라고 지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 교수도 매년 학생들과 동행했다.

〈축제에 심장이 뛰다〉란 책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시작된 황 교수의 프로젝트였다. '축제'란 주제로 황 교수가 직접 선택한 것이다. “국내에 축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축제는 하나도 없다. 축제는 없고, 축사만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심리적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축제는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미래 산업이다. 학생들이 단번에 축제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미리 공부하면 남들보다 앞설 수는 있겠다고 생각해 축제를 주제로 선정했다”고 했다.

연구 여행은 2010년 여름방학에 이뤄졌지만 준비는 2009년 겨울부터 시작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팀을 만들어 축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 공부를 하고, 관련 국내 축제도 탐방하고, 심지어 축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5차례나 특강을 듣고 세미나를 가지기도 했다. 예산이 부족해 강

사료를 줄 수가 없었지만 학생들의 열의에 감탄한 전문가들이 자기 돈 들여가며 학교까지 와서 기꺼이 무보수로 특강을 해주었다. 또한, 영국인 교수를 초빙해 한달동안 여행을 위한 영어 집중훈련도 시켰다. 유사 이래 가장 바쁘다는 요즘 대학생들의 생활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규 수업이 아닌 순수한 과외활동이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준비기간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책 발간에 코디네이터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변은민 학생은 “그야말로 준비란 이름으로 할 건 다한 것 같다.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았었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책 발간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진행해본 경험은 정말 소중한 다”고 소감을 말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연구 여행도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사실 책이 나오는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변은민 학생은 어려웠던 점을 “해외 축제와 국내 축제를 비교하고 성공모델을 제안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골자인데, 축제가 우리들의 스케줄대로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축제 탐방에만 최대 1년의 시간이 걸렸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이고 모두 바쁘다 보니 원고가 쉽게 모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1년이나 걸려서 원고는 완성됐고, 출판사 선정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드디어 올해 책이 나온 것이다.

사실 황 교수에게 있어 이번 책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년을 앞두고 진행한 제자들과의 마지막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간 이번 프로젝트까지 총 10번의 배낭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3번째 책을 만들었다. 황 교수는 “사실 처음과 두 번째 책은 부족한 면이 많았다. 판매할 수 있는 책으로서 부족했다. 하지만 세 번째 책은 다르다. 나름 깊이가 있으며 충분히 축제에 대한 연구 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온 책이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나온 완성도 높은 책이어서 더 기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황 교수에게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다. 과거 9년의 해외 배낭여행 프로젝트는 황 교수가 직접 발로 뛰며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었고 부족한 돈은 사비를 쓰면서 진행했다. 반면에 이번 10번째 프로젝트는 RPM 출신의 졸업생들, 과거에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본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경비를 지원한 것이다. 지원금은 이번 유럽배낭여행의 왕복 항공료로 사용됐다. 이에 대해 “자신들의 소중한 경험을 후배들에게도 선물한 RPM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 선배들의 후배사랑을 보며 훌륭한 제자들을 두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다”고 말했다. 40여명의 RPM 출신 제자들은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모아 주었다.

그동안 수차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한 학생은 누구였냐는 질문에 허허 웃으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무책임한 녀석들이 있었다. 다들 바빠서 그런 거지만 여행 다녀와서 잠수 탄 녀석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 때가 제일 난감했다” 그러고는 다시 진지하게 덧붙이기를 “좋아서 하지 않으면 힘들다. 과정을 즐기지 않으면 재미를 못 느끼고, 그러면 열심히 안한다. 그래서 힘들다. 요즘 스펙 쌓기에만 열을 올리며 뒹어진 길로만 가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책이 나올 때까지 황 교수는 자신은 별로 한 게 없단다. 자신은 명석을 깔아준 것뿐이며, 분명히 연구하고 책을 쓴 사람들은 학생들이고 비용은 낸 것은 선배들이란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이디어 내고, 강사들을 섭외하고, 선배들 설득하고,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일만 했단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RPM 학생들은 안다. 짧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직접 연구하고, 책을 출판할 기회를 가진 학생들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값진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준 사람은 황 교수의 교육 철학이었고 방식이었음을.



책으로 하는 공부도 공부지만 직접 부딪치며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획부터 책 발간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진행해본 경험은 정말 소중한

# 행복한 학부생 만들기 프로젝트



## Happy Undergraduate Students in Ajou University

아주대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행복한 학부생 만들기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전공지식과 연계해 개도국을 대상으로 적정 기술(한 공동체의 문화, 정치, 환경적 측면을 두루 고려해 만들어진 기술, Appropriate Technology)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펴는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한 26명의 학생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일주일에 4시간씩 사전교육을 받은 뒤 지난 1월12일부터 26일까지 13박14일 동안 캄보디아 뚝뚝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뚝뚝마을은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씨엡립에서 차로 3시간 떨어진 오지마을이다.

'행복한 학부생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장지수(기계공학과 4학년), 이지희(문화콘텐츠학과 3학년) 학생을 통해 즐겁고도 행복했던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타인의 삶을 바꾸는 특별한 봉사, 더불어 우리도 '힐링'

지난 1월31일 오후 아주대 울곡관 한 강의실에 모인 학생 26명의 눈빛은 한결같이 반짝였다. 끊임없이 재질대다가도 발표 시간이 되자 진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모습에서는 자신감과 여유도 느껴졌다. 학점과 영어점수, 취업 걱정에 사로잡혀 풀죽어 있는 어느 대학생과는 다른 모습의 그들은 아주대가 기획한 '행복한 학부생 만들기(Happy Undergraduate Students in Ajou University, HUA)'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글 이슬(홍보실)



장지수 : 처음 뚝뚝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만해도 나는 내가 그들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많이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들의 노하우나 관습 같은 것들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그리고 비로소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대할 수 있게 됐다.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지냈던 시간은 없었다. 앞으로 바쁜 일상에 지칠 때마다 캄보디아에서의 '힐링(Healing) 타임'이 떠오를 것 같다.

이지희 :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1년 내내 무더운데다 악취가 진동하고 마음 놓고 마실 깨끗한 물도 없는 마을에서 그곳 주민들의 얼굴은 항상 미소로 가득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불평하던 짜증 많은 나는 점차 여유 있는 나로 변화해갔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팀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그들과 공유했던 시간들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은 내 가슴 속에 '나만의 보석'으로 남아 영원히 잊혀 지지 않으리라.



- 1, 5. 뚝뚝마을에 태양광 랜턴을 보급했다.
- 2, 4. 협업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리어카를 제작했다.
3. HUA와 함께 탄생된 러브하우스
6. 체육대회를 통해 아이들과 하나가 된 HUA
- 7, 8.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해 정수기를 설치했다.

우리가 찾아가 뚝뚝마을은 더러운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는 오지마을이다. 때문에 우리는 학교수리나 집짓기, 문화교류 같은 일반적인 방식의 봉사활동에 더해 '뚝뚝마을 맞춤형' 봉사활동도 미리 준비해왔다. 무작정 도움을 주거나, 노동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 스스로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우리가 다른 봉사팀들과 다른 점이다. 우리는 리어카 및 정수기 제작, 손전등 보급, 화덕 제작과 같은 작업을 준비해 실행에 옮겼다. 국내 기업들에 요청해 받아왔던 정수기 필터, 소형 손전등, 태양광 발전패널 등이 현지에서 꽤나 요긴하게 쓰였다. 우리가 벌였던 적정기술을 이용한 봉사활동 중 가장 기

억에 남는 것은 리어카 만들기 작업이다. 서투나마 우리가 푹푹딱 리어카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함께 참여해준 덕택이다. 동네 최고 목수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이런저런 방식으로 리어카를 만들어보며 서로의 실력을 겨뤘다. 리어카 제작에 열중하고 있는 새 어두워진 뚝뚝마을의 밤은 우리가 만든 랜턴이 환하게 밝혀졌다. 정수 필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절 등에 설치하고 이용법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했다. 벚짚, 진흙 등 구하기 쉬운 소재를 이용해 현지 맞춤형 화덕도 총 13개나 제작했다. 마을 어린이들과의 체육대회, 사생대회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다.

# Interview

행복한 학부생 프로젝트

기획 및 학생 인솔  
유승현(기계공학과) 교수

## Happy Undergraduate Students in Ajou University

14일간의 캄보디아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지 어언 두 달, 하지만 동관 2층에 위치한 유승현(기계공학과) 교수의 연구실 곳곳에는 여전히 ‘행복한 학부생 프로젝트’의 흔적이 남아 있다. 학생들이 손으로 쓴 롤링페이퍼, 캄보디아에 가져갔던 정수필터와 손전등이 행복했던 그간의 시간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현지 봉사에도 동행했던 유승현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나?

ACE사업 중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 ‘행복한 학부생’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론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취업에 플러스가 되는 무언가를 가지게 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험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다. 그리고 이것들을 쫓는 키워드로 내가 교수로는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TRIZ’<sup>\*</sup>를 이용해봤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TRIZ를 배웠고 이를 현지 개선 작업에 적용했을 뿐 아니라 자격증도 받았다. 특정 레벨 이상의 TRIZ 관련 자격증을 따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에서 전공과 무관하게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이모저모로 도움이 될 걸로 봤다. 프로젝트를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봉사활동의 방법에 대한 것인데 단순히 물품을 들고 나가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방식이 맞다 라고 봤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적정기술을 활용한 봉사고, TRIZ 훈련 이후 학생들이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유도했다.

<sup>\*</sup> TRIZ(Teoriya Resheniya Izobretatelskikh Zadatch)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론’을 뜻하는 러시아어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창의성이 천재성이나 우연 등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 문제나 해결책의 사례 및 패턴 연구를 통해 기법을 익히면 누구나 혁신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방법론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정말 ‘행복한 학부생’이 되었나? 학생들에게서 엿본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이런저런 교육을 받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미심쩍었다. 캄보디아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짙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해가면서 또 현지인들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돌아오는 길에는 자연스럽게 ‘행복한 학부생 만들기 프로젝트’ 2기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프로젝트를 또 했으면 좋겠고 친구에게 참여를 권하고 싶다는 거다.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 흐뭇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경험이 학생들의 일생에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도 생겼다. 우리가 가져갔던 아이템들이 현지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 스스로 우리가 소개한 물품을 활용해 사업화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 역시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된 것 같다.

행복해지기 원하는 아주대 학생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타고난 능력과 가정환경 같은 것들이 남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서 ‘최고(Best one)’가 되는 것은 힘들다. 그렇다면 ‘특별한 무엇(Only one)’이 되면 된다. 어떤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 글로벌 경쟁력 갖춘 선진 약학교육을 이끈다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은 글로벌 리더형 전문약사 양성을 위해 6년제 약학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약기업, 임상약무, 지역약국,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임상약학 및 산업약학 교육을 기반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여 신약개발과 제약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약학 리더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약학교육을 선도하는 국제 수준의 약학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국내 최고의 임상약학 및 산업약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세대 약학 리더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글 문효근(편집실)





### 글로벌 수준의 임상약학 실무실습 교육 시스템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임상약학 교육은 글로벌 리더형 전문약사 양성을 위해 미국 ACPE에서 인증한 Doctor of Pharmacy(Pharm D) 교육 과정을 모델로 삼고 있다. Pharm D 교육은 약물요법의 전문가인 임상 전문약사가 다양한 약료 환경에서 다양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교육이다.

아주대 약학대학은 또 미래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환자 중심의 교육 및 실무실습 역량이 강조된 교과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캠퍼스 내에 위치한 세계적 수준의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의 약물요법을 제공하기 위한 차별화된 병동임상 실무교육 기반도 마련하였다.

### 산학협력을 통한 신약개발 연구와 제약산업 선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은 자생적인 의료 및 핵심 제약기업들의 주요 연구 시설이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살려 임상약학 기반의 신약개발 연구와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도입하였다. 국내 최고 제약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위해 산업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과 산업약학 실무실습 교육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실습을 통해 산업체의 다양한 노하우를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우수한 교수진과 인프라로 선진 약사 교육을 이끌어

아주대 약학대학의 또 다른 장점은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치는 교수진들과 대학 주변의 자생적인 바이오 및 제약 인프라를 들 수 있다. 15명의 교수진들은 정부기관 및 기업들의 신약개발, 혁신개량신약, 줄기세포, 의약품 임상정보, 화장품 및 건강식품 개발에 참여해 온 다양한 경험과 연구 역량을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임상연구 전문가, 약사 출신의 변리사, 식약청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약사의 역할에 대해 토의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과 연구, 인성 함양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문약사의 진로와 미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교수 1인당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교수별 담임반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연구, 진로설정 적극적인 등 학교생활 지원에 여념이 없다.

지난 2012년 2월에 1단계로 준공된 약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전공연구실, 동물 처치 및 수술실 등의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할 수 있는 훌륭한 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4개 층의 추가 공간이 조만간 확보될 예정이다.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은 환자 중심의 임상약학교육 프로그램, 산학협력을 통한 신약개발 연구, 제약산업 선도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약학교육의 새로운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행보가 주목된다.



## Interview

### 이범진 약학대학장

#### 약학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현재 15분의 교수 모두가 약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약학 전임교수도 3분이 계십니다. 또한 캠퍼스 내 병원과 주변 제약 관련 인프라 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병동임상 실무교육, 제약기업에서의 현장교육, SCI급 졸업논문발표, 외부전문가 초청특강의 활성화 등은 아주대학교 약학대학만의 특성화된 교육전략이라 생각합니다.

#### 임상 기반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와 신가치 창출형 약사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상 기반 교육은 현장 실무실습 위주로 진행되어 환자 중심의 질 높은 약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약 산업과 연계한 신약 개발이 시너지를 발휘해 우수한 신약 개발과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신가치 창출의 약학교육과 약사 양성의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제약 강국을 선도하며 국민 보건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는 약사가 바로 신가치 창출형 약사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학병원 내 차별화된 병동임상 실무교육 구축이나 글로벌 제약 임상특수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약학대학 학생 지도의 역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선적으로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환자를 배려하는 인성과 봉사의 철학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여 전문약사로서 국민 보건 함양과 신약개발 등 국가 성장동력에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키워낼 것입니다.

#### 아주대의 6년제 약학교육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6년제 약학교육 시스템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약국, 병원, 제약회사 등 현장 위주의 실무실습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약료서비스와 국민의 복지증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 아래 전문약사의 교육을 통해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6년제 약학교육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미와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약학대학의 주요 운영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캠퍼스 내에 세계적 수준의 아주대학교병원이 있다는 것은 약학대학으로서 훌륭한 인프라를 구비한 것과 같습니다. 주요 제약회사들과 바이오 관련 기관, 시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생적인 인프라와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임상약학교육과 제약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약개발 연구와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알차고 강한 약학대학이라는 롤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약학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경쟁력 제고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약학교육 관련 학회를 유치하는 한편, 제약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약회사가 세계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축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상기반 약학교육과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대외 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 약학대학의 비전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의 비전과 미래는 다음 아닌 학생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6년제 전문 약학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활약할 수준 높은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상 및 제약 실무실습과 우수한 신약개발 연구 등 다른 약학대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약학 교육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도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 약학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와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약국이나 병원, 제약회사, 변리사, 공무원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하고 유연해진 진로와 전망이 존재하는 만큼 6년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전문약사로서 글로벌 혁신 제약기업이나 지식 기반의 창조적인 직업에 진출해 국민 보건 서비스나 국가 성장동력에 기여하려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약학대학 재학생과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보다 학업에 전념해야 하겠습니다. 약학은 실무경험과 현장지식이 요구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종합학문입니다. 미래 인재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약학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자기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합쳐 궁극적으로 최고의 명문 약학대학을 만드는데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 w a r d & S e l e c t i o n

A J O U U N I V . N E W S

수상 및 선정



1 2012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우수평가

아주대가 2012년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성과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수행한 65개 대학의 사업수행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추후 사업비 추가지원 및 사업 중단 대학 선정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주대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지난 2012년 3월에 유지했다.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매년 약 2억 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 받게 되며, 경기도 및 수원시로부터 매년 약 1,00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예정이다.

2 대학기관평가 인증 받아, 정부 지원 사업에 활용

아주대학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의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받았다. 이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을 보증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주대를 포함해 총 30개 대학이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원은 인증심사를 신청한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시설,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아주대는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실사를 받았다. 대학기관평가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 결과는 내년부터 정부의 각종 행정·재정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



3 2012 로스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2012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 결과, 아주대가 우수한 성적으로 인증 평가를 받았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인증(Pass) 판정을 받았고 그중 6개 항목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체 25개 로스쿨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이다. 아주대가 우수 평가를 받은 항목은 교육목표의 적절성,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학생상담 및 지도, 학생복지, 교육시설 일반, 필수기본 시설 확보다.

4 이분열 교수, 제1회 탄소문화상 학술상 수상

아주대 분자과학기술학과 이분열 교수가 대한화학회 제1회 탄소문화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2월, 대한화학회(회장 이덕환)는 처음으로 제정한 탄소문화상 학술상 수상자로 이분열 교수와 김관수 연세대 화학과 교수, 김상규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화학회는 이분열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 이유에 대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고분자를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금속촉매 개발 분야에서 뛰어난 학술적 성과를 이룩했다"며 "개발된 촉매로 합성된 이산화탄소 고분자의 산업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을 실현, 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5 교과부 선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으로 선정

아주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지난 12월30일 201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발표, 아주대를 포함한 30개 대학을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우수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법무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4년제 대학 212곳, 전문대 138곳을 포함한 3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인증대학과 비지원대학을 가려냈다. 인증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기숙사 제공비율, 보험가입률, 재정건전성, 다양성, 유학생 언어능력 등을 평가했다. 아주대는 위의 6개 영역 모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6 교과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서 특별공로상 받아

아주대가 외국인 장학생 교육과 국제 교류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아주대학교가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한 외국인 장학생 교육과 국제 교류 업무 등 본원의 사업 전반에 걸쳐 많은 협조를 해줬다"며 "유학생들의 학업진전과 국제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7 건축공학과 이근우 외 2명,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서 수상

아주대 건축공학과 학생 3명이 2012 대학창의발명대회 발명공모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근우 학생과 건축공학과 김연수, 전지훈 학생이다. 대회는 발명연구, 발명특허, 발명공모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아주대 학생들이 수상한 발명공모 부문 참가자들은 공모기업이 출제하는 특정 과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8 졸업생 유지취업률 5위, 취업의 질 우수



지난 2월,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2011년 대학별 유지취업률 현황에 따르면 아주대 6개월 유지취업률은 94.8%로 조사 대상인 전국 168개 4년제 대학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성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유지취업률이란 대학들이 졸업생들을 편법적인 방법으로 취업시킨 뒤 취업률에 반영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부터 도입한 취업률 지표다.

# 빛나는 미래를 향한 당찬 도전

소셜게임업체  
쿡앱스

박성민 대표, 김태은 이사



쿡앱스는 2010년 1월 설립된 소셜 게임업체다.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이 회사의 직원 수는 21명, 대표 게임인 '버글'을 비롯한 게임들로 쿡앱스가 기록한 올 2월 매출액은 15억원이다. 이제는 페이스북을 넘어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쿡앱스는 관련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떠오르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두 명의 아주인 박성민 대표(컴퓨터공학 00학번)와 김태은 이사(컴퓨터공학 02학번)를 제민규 학생(미디어학과 3학년)이 직접 만나봤다. 인터뷰 제민규(미디어학과 3학년) / 정리 이슬(홍보실)

능력은 있지만 창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대기업에 취직한다?

'능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보세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게 없겠죠.



제민규 : 두 분의 첫 만남과 쿡앱스를 만들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박성민 : 2007년 페이스북 관련 전공수업에서 처음 만났어요. 둘 다 군복무를 마친 뒤 복학한 직후였는데 교수님이 내주신 첫 과제를 마친 뒤 바로 서로를 알아봤죠(웃음). 그때부터 저희 둘은 계속 도서관과 실습실을 오가며 페이스북 게임과 어플리케이션만 만들었어요. 팔달관 333호 컴퓨터 실습실과 도서관 2층을 오가면서 밤새 일했죠. 교수님이 특별히 허락해주셔서 경비아저씨께서 오후 6시 이후에 컴퓨터 실습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경비아저씨께 참 감사하네요.

김태은 : 당시 페이스북은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 사용자들은 상당히 많았죠. 박 대표와 만났던 그 수업을 통해 우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 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던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들과 우리가 달랐다면 그들은 수업과 과제를 '숙제', '좋은 학점을 받아야 하는 수업'으로만 봤다면 우리는 여기 '길'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점이지요.

페이스북을 통한 소셜 게임에 매료되어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교내외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사업 마인드를 발전시켜가기 시작했다. 국내에 이렇다 할 롤 모델이 없던 시절, 구글을 통해 정보를 찾고 다른 해외 개발자들과 소통하면서 유럽과 미국 게임 사용자들의 취향과 스타일을 체득해 나갔다.

제민규 :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창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박성민 : 능력은 있지만 창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대기업에 취직한다? '능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보세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두려움 게 없겠죠. 창업에 대한 꿈이 있다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적은 돈이라도 실제 돈이 벌린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1년에 100만원이라도 벌어본 사람과 100억원을 벌고 싶다는 꿈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내외 기관에서 청년 사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많으니, 잘 찾아보세요.

김태은 : 목표를 작게 잡고 차근차근 사업을 크게 키워 가면 됩니다. 실패도 해볼 필요가 있죠. 실패해도 다시 일서설 수 있을 만큼 젊지 않나요? 저희도 그동안 승승장구해온 것만은 아니에요. 작은 사무실 임대료 정도만 감당할 수 있을 뿐, 월급 50만원도 가져가기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당시 저희는 직원 고용이나 회사 확장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죠.

제민규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듣고 싶어요.

김태은 :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직원들 간에 서로 의견 교류가 잘 되는 회사, 직원과 임원 간에도 부담 없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회사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두 사람이 권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박성민 : 저 역시 우리 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지요. 저희는 수평적인 구조의 회사를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임원실을 따로 만들지 않고 모두가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죠. 팀 간의 벽도 없었으면 해요. 그래야 모두의 호흡과 숨결이 들어간 게임이 탄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민규 :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박성민 : 저희가 하는 일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후배들을 두루 사귀어 보고 싶네요. 직원을 채용할 때 고생을 꽤 많이 했거든요(웃음).

김태은 : 저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저희와 함께 일할 후배들을 좀 구하고 싶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소셜 게임에 관심 있는 아주대 후배들과 함께 일하고 싶고요. 저희는 개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성이 훌륭한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시종일관 막힘없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털어놓던 두 사람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나는 질문에 입을 모아 아쉬움을 피력했다. 취직을 위한 공부, 스펙 쌓기를 위한 공부만을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안타까워서다. 취업경쟁에 치진 후배들을 직접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싶다는 박성민 대표와 김태은 이사, 봄꽃 핀 아주대 교정에서 두 사람과 후배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 “특별한 이유?”

*Thank Donor*

## 그저 마음을 따라갈 뿐”

송진국(화학공학 73) 동문

백발의 중년신사는 자신을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10만 달러, 한화로 1억원이 조금 넘는 장학금을 선뜻 내놓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없다”라는 짧은 답변이 먼저 돌아왔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1회 졸업생으로 알게 모르게 생긴 자부심과 책임감은 학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오래 전부터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글 이경아(편집실)



아주대학교 화학공학과 73학번, 제1회 졸업생 97명 중 1명, 미국 화장품 기업 나테라 인터내셔널(Naterra International) 대표이사 송진국 동문은 지난 1월31일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학교에서는 ‘송진국장학기금(가칭)’을 신설해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30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만 해도 배낭에 넣을 짐이라곤 젊은 날의 패기가 전부였던 그, 점점 작아지는 이 나라의 땅을 내려다보며 어엿한 중견기업의 CEO가 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게 될 이란 날을 상상하고 있었을까.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죠. 저는 이런 걱정을 좀 덜어주고 싶어요.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일’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살아야 해요. 공부도 사업도 즐겁게 해야 성공할 수 있죠. 후배들이 확신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뿌듯할 거예요”

### 비즈니스는 즐거운 놀이

송 동문과 친분이 있는 73학번 동기들은 하나같이 그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이었다고 기억한다. 대학 시절부터 어느 곳,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갔기 때문이다. 학교를 다니면서 산악가이드 일에 재미를 붙여 교양 영어 수업은 빼먹기 일쑤였고, 길가리에 나가 엿을 팔고, 시장에서 땅콩을 파는 등 흥미가 생기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다. 때문에 성적은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 영어 말하기 실력은 형편없었다.

“1982년 미국에 나갈 때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여행하는 기분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당시 거주하던 오클라호마의 한 화장품 회사에 맨몸으로 무작정 찾아갔죠. 직원을 채용하는 기간이 아니었지만 대표를 만나서 얘기만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 결국 대표가 내려오더군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의 영어를 한 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종이에 써서 대화를 했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 일만 하게 해 달라고요. 그 곳이 미국에서의 첫 직장이에요”

그는 코스메틱 스페셜티 연구실(Cosmetic Specialty Lab)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2년 만에 연구실장으로 파격 승진할 수 있었다. 업무를 소화하는 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여러 해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1994년 나테라 인터내셔널을 설립, 현재 미국 내 유아화장품 2위 브랜드 ‘베이비 매직(Baby Magic)’ 외 여러 브랜드와 화장품 원료 공장까지 갖춘 매출 1,000억원 규모의 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저는 사업이 재미있어요. 제가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가도를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일을 했어요. ‘히수’ 경영인이었던 셈이죠. 나이가 드니 가치관이 바뀌더군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상상하는 기업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Out of the Ordinary

후배들에게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은 송 동문은 텍사스주 플라워마운드의 나테라에서 이뤄지는 해외 인턴십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화장품 회사는 중합예술이라 불릴 만큼 많은 학문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마케팅, 디자인 등 다양한 학과 학생들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후배들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내는 대선배는 40주년을 맞은 아주대학교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갖고 있을까.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국에서도 훌륭한 학생과 직원들은 평범하지 않아요(Out of the Ordinary). 독특하고 색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대학교도 좀 더 자유로운 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풀어주고 신나게 놀 수 있게 해주어야죠. 많이 놀아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본 학생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유로움’이 아주대학교만의 뚜렷한 색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 행복한 다산형 인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나 가끔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아닐까 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여정을 가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본인은 평소 생각해왔다. 그 여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시대와 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그 과정에서 개개인은 자질을 개발하고 행복을 찾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교육은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주체적인 행복 찾기와 객체적인 역량 배양을 다 포괄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아주대학교 학생들이 4년 또는 그 이상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가는 일이 아주대의 주요한 과업이 된다.

이 과업의 시작은 아주대를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불행히도 이상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먼 현재의 입시 제도를 통한 선택 과정은 앞서 언급한 교육의 목표와 주체적, 객체적 자아 찾기 둘 다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스로 아주대의 인재상을 인식하고 이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대개의 경우 자신의 적성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으로 인문계와 자연계의 선택 작업을 하고, 이어서 자신의 성적이나 사회적 평판에 따라 가야할 대학을 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지라 아주대가 설정한 교육의 목표나 이념 및 인재상에 대한 의식 없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대부분이다.



입학처장이라는 직분은 아주대 특성에 맞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대학들은 소위 '우수한'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요즘, '우수한'이란 용어 대신 '특성에 맞는'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어찌 보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공간이 그나마 이상을 논하고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므로, 이 공간에서나마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품격 있는 대학 교육 이념의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도 이와 같은 생각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우수하면서도 아주대 특성에 맞는' 학생들이 아주대에 지원하게 한다면 학생들의 주체적, 객체적 자아실현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인간이 행복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이고,**

**그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확인할 때라고 한다.**

**함께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에서 행복은 오후 3시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아주대가 배출하고자 하는 인재는 '다산(茶山)형 인재'다. 다산형 인재란 다산 정약용과 같은 학문적 통섭을 통해 실용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의미한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아주대는 학문의 융합 및 복합을 통한 통섭 성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아주대가 목표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입학생들은 융합 및 복합 능력과 실용적 창의력을 갖출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젊은이어야 한다. 따라서 아주대가 환영하는 인재는 폭넓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스펙트럼이 넓은 학생들이며,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다.

아주대는 현재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를 늘려가면서 위와 같은 능력을 지닌 잠재적인 입학생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논술시험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학생들을 선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정시모집에서 수능시험의 결과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공부해왔는지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선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입시제도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최적의 답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만 교육의 선진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교육 선진국들의 입시 제도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각 대학의 특성화된 교육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주대는 지속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입학에서 졸업까지 다산형 인재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산형 인재가 된다는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객체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어떻게 아주대 학생들이 주체적 행복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인가이다. 대학이 공적인 교육체계와 학습으로 기계적인 인재만 양산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회는 매우 건조한 사회가 될 것이다. 물론, 주체적 행복 찾기는 개인의 성격과 노력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최소한 4년여를 보내는 이 공간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올 겨울,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였는데, 그 장소가 미국 모 대학의 학생회관 2층이었다. 그 건물 1층에 피아노가 한 대 있었는데, 여러 학생들이 자유롭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들려주었다. 건물 밖 잔디광장에는 노천카페와 같은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차를 마시며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이지만 인간이 행복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이고, 그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확인할 때라고 한다. 함께 소통하고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에서 행복은 오후 3시 그림자처럼 다가온다.

올 가을 도서관 뒤 잔디밭이나 체육관 옆 잔디밭에 노천카페에서 학생들이 맑은 햇살 속에서 이야기 나누며 미소 짓는 모습, 파란 인조 잔디구장에서 마음껏 함께 뛰어 경쟁하는 모습, 노천공연장에서 록 페스티벌을 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본다. 주체적 행복감을 느끼는 기회는 그렇게 온다. 우리 아주인은 주체적 행복 찾기와 객체적 역량 배양을 위해 소중한 4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지만 향기로운' 시간을 보내길 기원한다.



아주대학교 입학처장 한호

M e d i c a l C e n t e r

A J O U U N I V . N E W S

의료원 소식



1

아주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

아주대학교병원이 '2013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신규 지정됐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도 사업이다. 올해는 아주대병원을 비롯하여 전국 6개 의료기관이 새롭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아주대병원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10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장비 관련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아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경기도 지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을 말한다.

2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유희석 아주대병원장)가 2월22일 열린 제7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2년도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평가에서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데 따른 것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 기관은 경기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총 7곳이다.

3

아주대병원, 해군과 진료협약 체결

아주대병원과 대한민국 해군이 2월1일 아주대병원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지원훈련 등에 관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진료협약에 따르면 아주대병원과 해군은 만·군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과 학술교류를 실시하고, 현역장병 중 해군에서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아주대병원이 진료비 후불 등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유희석 아주대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석해군 선장의 치료를 계기로 아주대병원은 해군을 친근하게 느끼고 있고, 그 일로 아주대병원은 세계적 명성을 얻으며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앞으로도 상호 윈윈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4

아주대의료원, 수원시와 제10구단 유치 지원 협약 체결

아주대의료원과 수원시가 1월7일 수원시청 시장실에서 프로야구 제10구단 유치와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하여 소의영 의료원장과 김재복 영통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원시 연구 신생프로야구단 선수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협약체결에 따라 의료원은 사고로 인한 환자의 응급조치, 치료 및 수술, 재활 등에 적극 협조하고 권역의상센터의 지원 등을 약속했다.

5

지역암센터, '2차 암 0% 만들기' 주제로 암예방의 날 행사

아주대병원 지역암센터는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된 '암 예방의 날'을 맞아 3월20일 오후 2시 아주대병원에서 경기도 관련 전문가, 보건소 공무원, 의료진과 암환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암 예방의 날'은 지난 2008년에 제정됐으며, 경기도와 아주대병원 지역암센터가 기념 행사를 가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차암 0%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행사로, 암환자 작품전시회, 웃음치료, 원예치료, 암환자의 웰빙스타일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6

일본 동해대부속병원 진료부장 일행 방문

일본 동해대부속병원 Yasuo Suzuki 진료부장을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2월14일 아주대병원을 방문했다. 간호부, 의공과, 약제과, 재무과, 사회사업과, 법무과 등 각 부서별 연수 실무진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병원 곳곳을 둘러보고, 연수 관련 각 부서를 방문하며 직원 연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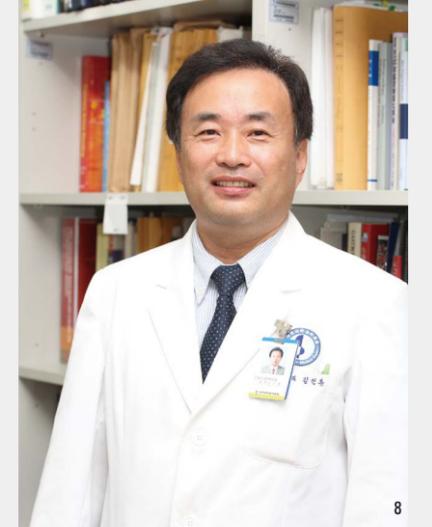
의료원 개원 18주년 기념 우수교원 포상

의료원은 3월7일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과대학 전체 교수회의에서 의료원 개원 18주년을 기념하여 교원에 대한 공로를 포상했다. 이날 우수교원으로 공로상을 받은 교원은 총 10명으로 총장상에는 약리학 교실 주일모 교수, 의료원장상에는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현준 교수와 진단검사의학교실 조성란 교수, 의과대학장상에는 소화기내과학교실 유병무 교수, 의과대학연구소 김은영 교수,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병원장상에는 중앙혈액내과학교실 강석운 교수, 산부인과학교실 백지흠 교수, 외과학교실 이정훈 교수, 간호대학장상 함형미 자문교수(간호부장)다.

8

김진홍 교수, 한국스텐트연구학회 초대 학회장 선출

아주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진홍 교수가 2월15일 서울 삼성동 배어홀에서 열린 한국스텐트연구학회에서 초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행사에는 학회소속 임상 전문의들과 학계, 산업계 연구 인력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학회 발족을 축하하며 국내외 스텐트 산업의 연구와 임상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학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산업계와 학계, 임상사들의 협업을 한층 강화, 스텐트의 국산화 및 연구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8

# 아주사랑



아주대학교는 무한경쟁을 기회 삼아 '더욱 앞서가는 대학',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학'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2012년 12월에서 2013년 2월, 많은 분들이 아주대학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주대를 사랑하는 진심어린 후원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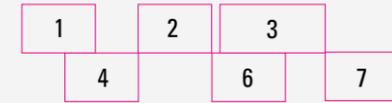


사진1. 조영호 이사장, 황필상 박사, 안재환 총장,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왼쪽부터)

사진3. 안재환 총장, 송용진 도서관장, 조위덕 전자공학과 교수(왼쪽부터)

사진4. 박중술 이경장학재단 이사장, 한재수 전 이경장학재단 이사장, 이삼구 동문, 안재환 총장, 이종철 동문, 박호환 경영대학원장,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왼쪽부터)

사진6. 장학생들과 함께 한 유재석 대학원장, 전병도 롯데장학재단 이사, 안재환 총장, 송현호 학생처장,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왼쪽부터)

## 1. 구원장학재단 설립 10주년 감사패 전달

12월6일, 안재환 총장은 구원장학재단 설립자 황필상 박사, 조영호 이사장과 만나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난 10년간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원장학재단은 아주대학교 동문인 황필상 박사(기계공학과 73학번)가 2002년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지난 10년간 구원장학재단이 아주대학교 장학금과 연구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구원장학재단은 올해도 총 40명의 아주대학교 학생에게 1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2. 김선기 동문, 장학금 1억원 쾌척

1월17일 대학발전본부는 전자부품 제조사 조인셋의 대표이사인 김선기 동문(전자 79)이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동문이 2002년 설립한 조인셋은 전자부품 개발 및 제조업체로 2011년 매출액 290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김 동문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이 우선적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재환 총장은 직접 경기도 안산 소재 조인셋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 3. 교내 구성원 잇따라 학교에 발전기금 기부

1월22일, 율곡관 총장실에서 송용진 중앙도서관장과 조위덕 전자공학과 교수, 김형식 대학발전본부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다. 송용진 도서관장은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고 조위덕 교수는 일반대학원 전자공학과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내놨다. 김형식 대학발전본부 본부장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

## 4. 장학금 기부 이종철·이삼구 동문에 감사패 전달

아경장학재단에 기부금을 낸 경영대학원 이종철(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3기), 이삼구(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35기) 동문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3월8일 열렸다. 아경장학재단은 2007년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가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아주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성금속 대표인 이종철 동문은 그동안 아경장학재단에 약 8,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아경장학재단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동산전 대표인 이삼구 동문 역시 약 3,000만원을 아경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이 동문은 경영대학원총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축구부 후원금, 발전기금 등으로 총 3,800만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했다.

## 5.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 장학생 32명 선발

작년 6월13일에 창립된 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산하 아주 소시에떼 도네르(Ajou Societe d'Honneur)에서는 2013년 1학기에 32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소시에떼 도네르는 영어의 'Society of Honor'에 해당하는 불어로, '명예클럽'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 클럽 멤버들은 매학기 30여명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 30만원씩 4개월 동안 생활비를 지급한다. 연간 70명에게 총 8,400만원을 지원하는 규모다. 수혜학생들은 졸업 후 소시에떼 도네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수혜금액을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는 등 다른 기부단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다.

## 6. 롯데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2월25일 오후 2시, 아주대학교 율곡관 제1회의실에서 롯데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1983년 설립된 롯데장학재단은 국내 초중고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아주대에서 롯데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총 14명으로 장학금 액수는 4,800만원 수준이다. 안재환 총장은 "오늘 장학증서를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며 "장학생 여러분이 받은 혜택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후배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7. 안재환 총장, 창현교육재단 찾아 감사의 뜻 전해

2월25일, 안재환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이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창현교육재단을 찾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창현교육재단은 학교법인 유신학원이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난 2011년 2학기부터 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지원해왔다. 공대 재학생 가운데 학업 성적이 좋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올 1학기에도 총 15명의 학생이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 8. 1-1-1 캠페인,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1-1-1캠페인으로 모인 장학금이 3월20일 아주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1-1-1캠페인은 동문,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아주가족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모금액은 학과별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2012학년도 1-1-1장학금의 규모는 총 2억700만원 상당으로, 138명의 재학생에게 150만원씩 지급됐다.

# 아주사랑

## 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부자 2012.12 ~ 2013.2

김동길	김수덕	박일분	이동현	진성호	(사)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강기룡	김숙영	박재영	이문환	최경덕	(사)아주대학교 동문장학회
강병혁	김술찬	박춘자	이민상	최근경	(재)네오딘의학연구소
강승현	김승범	백승훈	이상열	최동욱	(재)서울의과학연구소
강태규	김승주	백홍진	이상엽	최상돈	(주)디지털헤럴드
강태현	김영래	석경협	이상진	최선정	(주)우주일렉트로닉스
강현우	김영숙	석용수	이수철	최원	가치있는밥상
강홍민	김영아	선준규	이수훈	최홍근	건축학과 학생일동
고기황	김용덕	성지선	이영민	하중수	경영대학원MBA 47대 원우회
고민수	김용태	송용진	이영이	하혜영	돈황갈비
고민진	김원상	수누리	이영철	한영희	드림디포수원본점
고승창	김윤기	신동혁	이재경	한일	공학대학원 CEO20기 원우회
고진수	김인규	신두철	이정준	홍성길	명동칼국수 사브사브
공민식	김재환	신영관	이정화	홍재광	비티에스테크놀로지스(주)
권건보	김지희	신윤철	이중수	황성진	사회복지법인 건아재단
권영철	김진욱	신형섭	이중연	황원선	삼광의료재단
권오희	김천훈	아정희	이주승		무교동일품낙지
권용일	김태한	안대근	이지현		미라클저자
권중희	김태호	안성근	이진식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권춘련	김태환	안영찬	이창준		영동상
김광윤	김한욱	안재환	이춘희		유니온플라워
김국희	김한집	안종길	이혁준		의료법인복심자재단
김규남	김형식	양광모	이효걸		제일찌게백반
김균현	김형호	양승철	임동하		주식회사 오케이컨설턴트
김기현	김혜선	오말지	임한조		주식회사 인천유아이드
김남숙	김혜진	오신규	장삼진		청이회
김동문	나창용	오연주	장은혜		태화장
김동엽	나충주	왕재선	전병홍		한국그루
김두화	남석현	위영철	전상천		한우람 명품관(주)
김명덕	도미진	위영철	전철구		허수아비
김명범	도수일	위영철	정명숙		홈스테드 아주대점
김무림	류승우	위영철	정상호		현경
김문석	목명균	위영철	정서진		
김미숙	문도준	유승미	정선희		
김민구	문은표	유재석	정성운		
김민수	민철기	윤영식	정영근		
김민우	박기범	윤정훈	정영호		
김병관	박만규	윤진수	정인권		
김보경	박상규	윤형진	정해근		
김상룡	박상희	이강구	정현우		
김상태	박성우	이광필	제갈훈		
김서용	박성진	이교범	조규용		
김성조	박승진	이군상	조위덕		

## 1-1-1 캠페인 기부자 2012.12 ~ 2013.2

갈원모	경태영	권기형	김광수	김동석	김봉렬	김수현	김영일	김은숙	김중선	김창식	김현욱	남상능	문영준	박대원	박수진	박재연	박홍웅	서기준
김동근	고강현	권대진	김광일	김동엽	김봉식	김숙희	김영주	김은실	김중수	김창욱	김현우	남상신	문원길	박동애	박수진	박재홍	박환창	서명준
김정규	고건웅	권범윤	김광자	김동오	김봉준	김숙희	김영주	김은실	김중수	김창욱	김현우	남승우	문유건	박동애	박수택	박정식	박후상	서문호
강경원	고광희	권성환	김구용	김동완	김봉춘	김순복	김영중	김은호	김중오	김창주	김형희	남영실	문은표	박동진	박순례	박정옥	박희진	서미영
강경택	고근하	권순자	김국수	김동욱	김부자	김순태	김영중	김은희	김중완	김창진	김형근	남현모	문재경	박만규	박순식	박정원	박희태	서미화
강기현	고대권	권순정	김권기	김동욱	김상영	김승권	김영진	김은희	김중완	김창현	김형선	남현우	문창규	박만진	박순음	박정원	반영무	서병수
강덕구	고동식	권영민	김규남	김동익	김상권	김승권	김영찬	김응경	김중원	김창호	김형성	노기열	문혜원	박맹상	박승규	박정원	반정호	서보건
강두경	고동현	권영자	김규봉	김동진	김상동	김승규	김영찬	김익현	김중준	김창희	김형수	노농길	문호진	박면신	박승모	박정훈	반철희	서봉현
강명구	고명식	권우웅	김규진	김동진	김상두	김승만	김영화	김익환	김중철	김창희	김형식	노동현	문희봉	박명분	박승우	박종경	방경원	서성택
강명덕	고병각	권오중	김규태	김동현	김상만	김승복	김영환	김인애	김중철	김창희	김형식	노민수	민병갑	박명옥	박시운	박종극	방병천	서수한
강명철	고병수	권오필	김근	김두용	김상선	김승석	김영희	김인애	김중현	김창희	김형우	노성완	민병구	박명희	박인태	박종기	방성주	서순영
강명희	고상현	권우익	김근배	김명수	김상열	김승애	김영희	김일수	김중현	김창희	김형준	노숙경	민병도	박모수	박인홍	박종우	방영미	서영덕
강민구	고성민	권우식	김근용	김명수	김석중	김승주	김영희	김재근	김중현	김창희	김형택	노순일	민병윤	박무돈	박연옥	박종석	방은경	서용재
강병돈	고순재	권우택	김근제	김명수	김석훈	김승주	김영희	김재용	김중석	김창희	김혜선	노영덕	민병현	박문산	박연옥	박종원	방재만	서원희
강복선	고양순	권윤하	김근태	김명임	김성경	김승진	김영희	김재용	김중석	김창희	김혜선	노은숙	민오경	박문순	박연희	박종원	방재욱	서유내
강석배	고용혁	권이수	김근표	김명현	김선관	김승희	김영갑	김재은	김중환	김창희	김혜영	노현규	민정기	박미도	박영근	박종윤	방현천	서은정
강석정	고은영	권익주	김금균	김명호	김선규	김시범	김용갑	김재정	김중환	김창희	김혜빈	노현욱	민준영	박미미	박영동	박종춘	배명환	서정원
강석환	고은화	권익진	김기문	김명호	김선규	김시천	김용길	김재학	김중환	김창희	김희광	노호균	민찬규	박미숙	박영두	박종호	배미현	서정현
강성식	고인용	권재일	김기섭	김모은	김선태	김애숙	김용구	김재호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노희정	민철기	박강서	박영만	박종희	배성준	서창희
강성운	고재만	권정의	김기섭	김문관	김선태	김애숙	김용구	김재호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성재	민철기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강송규	고재용	권총희	김기영	김문석	김성기	김아주	김용기	김재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강서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강신구	고제상	권총희	김기창	김미숙	김성탁	김양하	김용석	김재분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신호	고중섭	권주빈	김기태	김미숙	김성탁	김양하	김용석	김재분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신희	공경순	권주빈	김기태	김미숙	김성탁	김양하	김용석	김재분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영모	공영주	권춘연	김기현	김미자	김성실	김연석	김용정	김정권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윤환	곽노준	권춘연	김기현	김미자	김성실	김연석	김용정	김정권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은철	곽명숙	권태인	김기환	김미정	김성우	김연정	김용태	김정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중성	곽병철	권혁동	김기환	김미정	김성원	김연철	김용태	김정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중우	곽정숙	권혁면	김갑성	김민	김성조	김연화	김용호	김정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준성	곽정순	권혁용	김나경	김민구	김성준	김영관	김용환	김정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중수	곽정신	권혁중	김남기	김민선	김성중	김영국	김우원	김정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진모	곽정화	권혜언	김남진	김민영	김성태	김영기	김욱중	김정자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창진	곽창식	금동순	김남포	김민용	김성현	김영기	김욱중	김정자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철	구병춘	기은정	김대용	김범수	김성희	김영길	김욱중	김정자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태원	구본춘	길경수	김대용	김범수	김세득	김영무	김원식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태현	구유희	길기남	김대우	김병기	김세철	김영범	김유권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한현	구자형	김경래	김대홍	김병성	김세철	김영범	김유권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형호	구형자	김경숙	김덕영	김병수	김송암	김영선	김윤기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호식	구형자	김경숙	김덕영	김병수	김송암	김영선	김윤기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호철	구해진	김경원	김도선	김병영	김수기	김영선	김윤정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호출	구효숙	김경은	김도영	김병주	김수영	김영선	김윤태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한규	국영호	김경현	김도원	김병준	김수용	김영소	김윤택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훈	권경섭	김경혜	김동규	김병진	김수주	김영수	김은석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강희석	권광우	김경희	김동기	김보경	김수진	김영숙	김은숙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경정현	권기중	김계진	김동백	김복근	김수철	김영숙	김은숙	김정환	김중희	김창희	김희광	도정열	박건수	박영미	박주연	배영환	서창희	서창희

# 아주사랑

## 1-1-1 캠페인 기부자 2012.12 ~ 2013.2

손보익	송정원	신중현	안철순	여철현	왕남원	유영해	윤종엽	이기섭	이병엽	이승선	이용균	이재의	이진호	이홍주	임정혁	장지선	정문기	정중권	조영호	지춘수	최미숙	최인수	한근희	허석수	황린영	(주)경봉
손석상	송중례	신창호	안치규	염경훈	왕남원	유옥순	윤종찬	이기영	이병옥	이승호	이용로	이재진	이진희	이화	임정희	장직순	정미숙	정준모	조영호	지호연	최미영	최인자	한기자	허성철	황명수	(주)굿네트웍스
손순이	송중식	신춘섭	안태훈	염동일	왕영숙	유용수	윤주용	이기중	이병조	이수영	이용복	이재평	이창수	이회수	임종규	장진업	정민숙	정지순	조원익	진경년	최병국	최일근	한다예	허인영	황미라	대양코퍼레이션(주)
손순환	송진호	신태창	안현남	염병국	용세중	유용식	윤종근	이기홍	이병호	이수원	이용수	이정돈	이창우	이회영	임종섭	장혜영	정방근	정창경	조원호	진광선	최병무	최재근	한봉희	허택만	황민숙	미래공조(주)
손응중	송충숙	신현국	안혜영	염성현	용은희	유우근	윤진	이기훈	이보영	이수진	이용욱	이정복	이창원	이효순	임종섭	장희철	정복길	정태선	조용백	진명주	최병용	최재은	한상관	허호무	황민하	바이더웨이수유본점
손재영	송치영	신현주	안혜영	염우영	우동석	유인상	윤춘기	이기훈	이보형	이수형	이용운	이정상	이창훈	이효식	임종환	전근열	정봉석	정태화	조우현	진명철	최상돈	최재필	한상욱	현남주	황병철	보광토탈이엔지(주)
손정재	송현호	신형섭	안호영	오건석	우병주	유재권	윤하경	이대범	이복실	이숙향	이용훈	이정순	이채우	이효철	임지영	전두수	정서진	정해운	조원규	진성호	최상범	최재혁	한상준	현명주	황병철	(주)성호스텐
손정훈	송혜영	신호연	양광모	오경윤	우상혁	유재권	윤학근	이도섭	이복훈	이순덕	이우암	이정신	이철기	이홍수	임진규	전명자	정선교	정해근	조윤진	차연자	최선정	최재호	한석근	현석무	황선관	세이프건설(주)
손지영	송호영	신호준	양광하	오귀석	우신석	유재석	윤현철	이동규	이부영	이순아	이운갑	이정우	이충균	이희경	임창건	전병수	정성운	정해준	조은경	차미희	최선정	최정영	한석봉	현연식	황선영	(주)세인
손태식	송희상	심관용	양국현	오귀훈	우용재	유진원	윤혜경	이동규	이분열	이순영	이운호	이정원	이충식	이희관	임창규	전상수	정성환	정현숙	조은숙	차상훈	최성남	최정은	한성준	현정은	황성식	(주)세인코스
손현숙	송홍배	심우성	양기천	오금복	우은경	유창순	윤혜정	이동기	이상균	이순이	이윤정	이정인	이충용	이희연	임채원	전성필	정세훈	정해원	조익환	차선희	최성달	최종업	한성희	현희숙	황수연	(주)에이피피
손호순	신경애	심우영	양남미	오대식	우정석	유철형	윤환	이동래	이상국	이순태	이윤종	이정재	이치인	이희연	임채원	전성환	정세훈	정해원	조익환	차영선	최성혜	최종우	한영민	홍기창	황순일	(주)엔에프씨
송경수	신경철	심인석	양문도	오란석	우중근	유충상	은미희	이동성	이상국	이순택	이윤희	이정재	이태욱	인정민	임춘기	전승환	정승임	정해원	조재용	차영주	최수도	최종욱	한영석	홍기택	황우식	(주)이포넷
송경희	신동일	심정철	양민수	오명순	우춘섭	유태현	은유진	이강기	이상권	이순택	이은경	이정준	이태원	임근찬	임춘섭	전승민	정승화	정해인	조재현	차환운	최수연	최종욱	한영석	홍기택	황원복	(주)임파크
송근섭	신동주	안규세	양병용	오상경	우효정	유한석	이강숙	이동원	이상규	이승구	이은규	이정현	이태재	임금자	임춘성	전영목	정애경	정호운	조재형	채민국	최수영	최중성	한영업	홍남진	황원선	(주)한국푸엔코
송기상	신동철	안기홍	양봉식	오상탁	원용석	유현준	이강준	이동원	이상미	이승근	이은성	이정호	이태호	임기영	임태규	전용호	정양민	정희락	조재환	채석환	최순식	최중영	한운수	홍대의	황원선	
송기정	신동혁	안남옥	양성모	오성원	원윤희	유혜주	이강현	이동진	이상민	이승미	이은영	이정훈	이태희	임기한	임홍식	전우석	정양원	정희교	조정숙	채일	최순자	최중원	한윤희	홍덕표	황의경	
송기찬	신동희	안대근	양성식	오성호	원주경	유호상	이건화	이동호	이상성	이승우	이은영	이종근	이택천	임동수	임홍식	전우석	정양호	정희자	조종순	채일	최승권	최중호	한정숙	홍민철	황인국	
송기호	신두철	안대근	양승권	오세태	원지호	유호승	이경규	이두영	이상순	이승제	이은주	이종섭	이평애	임동주	임화선	전재현	정연광	정희진	조종용	천명길	최승운	최진형	한중인	홍범준	황진연	
송명동	신명호	안동현	양승렬	오수기	위정식	유희선	이경복	이만기	이상신	이승현	이은형	이종연	이평천	임동하	장경남	전정조	정연국	조강래	조종열	천순자	최승운	최진형	한중인	홍봉숙	황찬원	
송명중	신미정	안명식	양승석	오순아	위홍환	육현민	이경섭	이만성	이상아	이승희	이은호	이종용	이하영	임병재	장광열	전지영	정연호	조길훈	조종환	천승락	최신영	최창기	한진숙	홍성표	황충국	
송명중	신병우	안미선	양시영	오영진	유갑진	윤광석	이경수	이면	이상엽	이신형	이은희	이종욱	이한구	임병훈	장기순	전진호	정연호	조경제	조진선	천현연	최영길	최창식	한진희	홍성기	황태선	
송미숙	신상기	안병립	양영재	오영숙	유갑하	윤기원	이경우	이영운	이상원	이연희	이은희	이종원	이한록	임무환	장도영	전창규	정영훈	조광제	조총희	천행연	최영길	최창식	한진희	홍성호	황태완	
송미영	신상운	안병식	양원석	오영태	유경호	윤도원	이경재	이명자	이상원	이연강	이은정	이종원	이한식	임문채	장문상	전택일	정영욱	조광국	조호연	천희수	최영남	최충현	한창근	홍세경	황태완	
송병섭	신상진	안병열	양윤정	오영택	유광열	윤명범	이경중	이명주	이상천	이연숙	이응표	이종응	이한영	임민호	장병윤	전현수	정영욱	조광순	조한식	천희수	최영두	최태영	한태규	홍수정	황태완	
송병원	신성은	안병철	양인식	오영호	유권중	윤민경	이경중	이명호	이상철	이연순	이응표	이종주	이한영	임병국	장병정	전현숙	정영채	조규영	조해성	최영두	최영두	최학철	한형욱	홍순갑	황태완	
송석례	신성철	안상수	양재현	오용인	유권중	윤성중	이경현	이명희	이상훈	이연희	이응표	이종찬	이한희	임병국	장봉희	전형우	정욱희	조규태	조현욱	최관수	최영락	최현아	한호	홍순희	황태완	
송석희	신순옥	안선미	양정안	오윤영	유기상	윤석열	이계상	이문근	이상훈	이영경	이인수	이종태	이현규	임봉길	장상만	정경훈	정원식	조기홍	조현우	최광식	최영수	최현욱	한화영	홍영수	황태완	
송선옥	신승수	안선호	양호진	오은경	유덕기	윤석희	이계주	이문희	이석원	이영규	이인수	이종현	이현규	임석배	장석일	정구영	정왕진	조길원	조현주	최규선	최영실	최현주	한호식	홍영숙	황태완	
송성용	신영순	안성화	양희창	오은영	유동문	윤선희	이광노	이미경	이석현	이영국	이인순	이종훈	이현명	임석주	장석진	정구창	정요철	조동식	조형규	최근배	최영재	최홍근	한희영	홍원기	황태완	
송수근	신영철	안승숙	양희문	오재영	유동복	윤성택	이광미	이미영	이선경	이영규	이인풍	이주환	이현상	임석철	장선규	정규순	정우연	조명진	조혜성	최근실	최영호	최희선	함간주	홍은경	황태완	
송수훈	신용강	안순일	양희성	오정락	유명식	윤성희	이광용	이미영	이선미	이영록	이인호	이준섭	이현실	임석옥	장성천	정규순	정우연	조명진	조혜성	최근호	최영호	최희선	함간주	홍은경	황태완	
송순임	신옥	안영선	양희인	오정애	유명호	윤성원	이광중	이미영	이선형	이영미	이인주	이준영	이현욱	임성옥	장소영	정규하	정운규	조무창	조희형	최근숙	최용준	추동욱	함기애	홍재철	황태완	
송승용	신응식	안영찬	양희찬	오주심	유문숙	윤연숙	이광호	이미자	이상근	이영범	이재성	이준은	이현택	임영무	장양남	정기희	정유찬	조문준	조희형	최기탁	최용호	최우용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승호	신익수	안영환	여경림	오주영	유미경	윤영주	이광희	이미자	이상숙	이영석	이재권	이준호	이현모	임영준	장영미	정기승	정익대	조봉환	조희형	최기원	최원덕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영옥	신재봉	안예환	어승규	오준서	유병대	윤영화	이교범	이민선	이상식	이영수	이재길	이준호	이현무	임영준	장영미	정기승	정익대	조봉환	조희형	최기원	최원덕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옥자	신재수	안익훈	어윤하	오창석	유보형	윤용식	이규백	이민섭	이상식	이영옥	이재려	이준호	이현무	임윤백	장영수	정기정	정익수	조성만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용진	신재숙	안재성	엄경이	오창준	유상열	윤원식	이규철	이민우	이상식	이영일	이재민	이준호	이현무	임윤희	장용석	정기현	정인수	조성만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용호	신정섭	안재영	엄민희	오창현	유상원	윤은경	이규환	이민호	이상아	이영철	이재민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윤희	신정수	안재환	엄애현	오태근	유성렬	윤인명	이근석	이민호	이상엽	이영학	이재성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은주	신정진	안재철	엄재완	오태근	유성재	윤인성	이근석	이민호	이상엽	이영학	이재성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재규	신정철	안정열	엄택원	오택원	유승선	윤인수	이근숙	이민숙	이상운	이영호	이재식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재길	신준하	안정표	엄태문	오현숙	유시대	윤인중	이근기	이민기	이상운	이영호	이재양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정미	신준한	안창영	엄태호	오현우	유영숙	윤재덕	이근기	이민기	이상운	이영호	이재양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송정석	신준호	안창준	여각동	오형택	유영애	윤재승	이기명	이민기	이상운	이영호	이재양	이준호	이현무	임인섭	장용창	정기훈	정인하	조성철	조희형	최기원	최원석	최원석	탁현배	홍지훈	황태완	



Love is, above all else, the gift of oneself

# 1-1-1 캠페인

- 사랑스런 후배의 멘토가 되어 가슴 속에 자리합니다.  
1-1-1 캠페인은 단순한 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배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은 철저히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재학생 후배들에게 돌아갑니다.  
십시일반 모인 정성은 매학기 '1-1-1 장학금'으로 후배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 미래의 자랑스런 아주인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 선·후배간의 따뜻한 교류가 희망찬 '아주공동체'를 열어줍니다.



**전 화 : 031-219-2107~9, 2099로 전화주시면 기부상담 및 구두약정 가능**

**인터넷 : 대학발전본부 홈페이지(http://ajousarang.ajou.ac.kr)에서 [온라인약정] 클릭**

**이메일 : ajousarang@ajou.ac.kr 로 약정의사 표시**

**팩 스 : 031-219-1623으로 약정서 송부**

**CMS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일정기간 자동이체로 기부참여(세부사항 전화문의)**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든 큰 사랑 1-1-1 캠페인으로 후배사랑이 가까워집니다. 기부금은 재학생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 새롭게 선보인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

www.ajou.ac.kr



국문 메인 페이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www.ajou.ac.kr)가 지난 3월28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국/영문 메인 페이지와 학과별 사이트, 대학원 국/영문 사이트와 연구소, 부속 및 지원 기관 사이트 등을 포함해 총 123개의 홈페이지가 새 옷을 갈아입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은 ▲아주대 홈페이지의 정체성 확립과 일관성 제고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 ▲운영 및 관리상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두고 진행됐다. 아주대의 상징 색깔인 파란색을 기본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졌고, 각 대학 및 학과 사이트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메인으로 구성했다. 대학의 주요 구성원인 교수진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각 학과 교수들의 사진을 전면 재구성해 배치한 점도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특징이다.